

## “영원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 살자”

예장 합동, 4일

2024년 신년 하례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사진)가 2024년 신년 하례회를 4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하례 순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에선 서기 김한욱 목사의 인도, 부총회장 김영구 장로의 기도, 부서기 임병재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하나님의 책을 펴는 사람들(느헤미야 8:4-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 총회장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고 했다.

또 “학사 에스라는 영적 지도자들과 원팀을 이뤄냈다. 우리 총회 임원들도 감동을 겪고 있으나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총회 임원들이 원팀을 이뤄 일을 하자”고 했다.

그는 “본문에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에스라 등 지도자들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의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순종했다. 우리 총회도 지연 학연 등에서 벗어나자.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권에서 벗어나 주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오 총회장은 “우리 존재 안에에도 아들이 있지만 말씀의 빛이 비추지면 우리 내면이 밝아질 것이며, 밤이나 낮이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의 잘못에도 불쌍히 여기실 줄 믿는다”며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주님의 말씀만 영원히 선다. 주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

종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회록서기 김종철 목사가 ‘총회 산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회계 김화중 장로가 ‘GMS 선교사 사역과 재정을 위하여, 부회계 이민호 장로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북한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다.

증경총회장 장자남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장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의 절대권위를 근간으로 하는 개혁신학을 굳건히 지키길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개혁신학이 합동총회의 중심임을 알기를 바란다”며 “팬데믹 동안 타격을 입은 한국교회의 회복이 절실하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총회로 세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일심으로 올해 전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총회총무 박용구 목사의 광고 및 인사에 이어 다같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부른 뒤 부총회장 김종혁 목사의 축도로 마무



총회 임원들이 신년 인사를 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리됐다.

이후 2부 하례 순서가 이어졌다. 오정호 총회장이 총회 사랑 배지를 수여하는 순서에 이어 총회 임원들과 각 상비부장·상설/특별위원장·속회위원장들이 신년 인사를 했다. 이날 인사한 총회 산하 기관장은 총신대 이사장 화종부 목사, 총신대 총

장 박성규 목사, 총회세계선교회 부이사장 정영교 목사, 기독신문 사장 태준호 장로, 총회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이현국 목사, 총회교육개발원 회계홍승영 목사,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 본부장 이성화 목사, 교회영어어나라위원회 위원장 고석찬 목사이다.

노형구 기자

##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기도·말씀·은혜로 살자”

기침, 4일 2024년 신년감사예배 드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총회장 이종성 목사·사진)가 4일 서울 여의도 총회회관 13층 대에 배설에서 2024년 신년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에선 1부총회장 홍석훈 목사(신탄진교회)의 사회로 국내선교회 이사장 김창락 목사(수원동부교회)가 기도했고, 교회진흥원이사장 박대선 목사, 원장 김용성 목사) 직원들이 특송을 한 뒤, 71대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유영식 목사(동대구교회)가 ‘때가 차매(갈 4:4-6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 목사는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으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며 율법으로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복음을 잃어버렸다.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침례교회도 이런 모습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 경험하기 원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으로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보내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후 이대식 목사(원주가현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례식을 진행했다. 총회 전도부장 최성일 목사(주신교회)의 사회로 이종성 총회장이 신년사를 전했다. 이 총회장은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단적으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2024년 신년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있는 시대를 맞이하며 더욱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13차 총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침례교회가 부흥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모든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며 헤쳐나갈 것”이라며 “충심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 전국교회와 지방회, 기관을 섬기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2대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박성용 목사(천안교회)가 덕담을, 55대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양재순 목사(안양성도교회)와 65대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남호 목사(테크노사랑의교회)가 축사했다.

이어 군경선교회 서서용오 회장이 ‘세계평화, 국가와 위장자, 평화통일을 위해’ △해외선교회 주민호 회장이 ‘지방화와 교회,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해’ △전국여성선교연합회 백순실 총무가 ‘113차 총회 의장단과 임원, 총회 사업을 위해’ 각각 기도하고 총회 총무 김일업 목사가 광고한 뒤, 단체 기념촬영하며 신년감사예배를 마쳤다.

총회는 이날 2024년 신년감사예배를 시작으로 2024 목회자(선교사) 자녀 영성 훈련회, 전국지방회 간담회, 100만 벨티스트 전도운동, 대한민국 피로회복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 김의식 총회장 “복음 전하고 치유·회복에 더욱 힘써야”

예장 통합 2024년 신년사 발표

예장 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사진)가 2024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총회장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국내도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각 분야의 큰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모로코 지진,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휩싸였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우리를 이러한 끝없는 불행과 분쟁으로 몰고 갔나? 그것은 개인과 집단이 기주의에 의해 지역간, 계층간, 이념간, 세대간, 성별간 대립과 분열이 극심했기 때문이었다”며 “거기에 다 멈출 줄 모르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황폐화 하였으며 전쟁을 일으켜 온갖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로 인해 말로 다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이 뒤따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총회장은 “문제의 해답은 분명하다.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의 사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대립은 모두 다 버려야 한다. 그리

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고 용서와 화해와 은혜와 행복을 나누는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러한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서로 불화하고 분쟁할 힘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믿는 자의 모범을 보이며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총회장은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밝히고,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4월 10일에 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인, 국민을 위한 섬김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인, 지역과 사회를 바로 세워가는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으로 더욱 뜨겁게 부흥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 그리고 주님 보람을 날을 예비하며 열방의 선교에 더욱 힘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보유분 특별공급”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서리플터널,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남부터미널역, 예술의전당, 서초고교, 세리플공원

강남, 서초 최저 3억~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TYPE 2 (전용면적: 58.82㎡)



TYPE 4 (전용면적: 59.57㎡)

계약금 2천만원 (1차)

강남, 서초 줄줄!! 단지를 잡아라!!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강남 서초에서 누리는 주거에 최적화된  
혁신 평면과  
호텔식 컨시어지서비스,  
트리플 역세권!  
(3호선 남부터미널역, 2호선 교대역/서초역)

시범 \* 마나자산신탁 위탁 (주)한맥에셋 (주)코우드 시공 효성중공업(주)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현장: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40

주택전시관 OPEN 문의 02 525.0905



# ‘자유 향한 1만2천km 탈출기’ 탈북 인권 다큐, 1월 개봉

올해 아카데미 예비 후보 오른 <비온드 유토피아>

올해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 예비 후보에 오른 <비온드 유토피아>가 이달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비온드 유토피아>는 낙원이라고 믿고 자란 땅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과 이들을 돕는 김성은 목사의 헌신적인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은 탈북 인권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에는 북한 인권 유린의 리얼한 장면과 자유를 향해 탈북을 하려는 사람들의 탈출기가 생생하게 담겼다. 특히 거짓 낙원인 북한을 탈출하려는 노씨 일가족과 아들을 북한에서 구출하려는 탈북민 이소연 씨의 이야기가 안타까움과 함께 감동을 전한다.

이 영화가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한 1만2천km의 생생한 탈출기를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운동가인 갈렙선

교회 김성은 목사의 힘이 컸다고 한다.

김 목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교를 목표로 중국과 제3국에서 국적 없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회복에 힘쓰는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운동가다. 김 목사가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데 삶을 바치고 헌신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중반 중국으로 선교활동을 하러 갔다 암록강에 떠다니는 북한 주민들의 시신을 본 것 때문.

그는 초창기 탈북민을 돕다가 두만강 빙판에 넘어져 목에 철심을 박기도 하고,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간 1천 명이 넘는 사람을 탈북시키고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키는 브로커 역할로도 활동하며



영화 스틸컷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탈북민의 실상을 알리고 오랜 기간동안 탈북민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비온드 유토피아>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한국에 오게 된 매들린 개빈 감독과 제작진은 영화를 완성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김성은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김 목사는 자신의 인맥과 구출을 돕고자 하는 사람

들을 극도로 보호했지만 <비온드 유토피아> 제작진들의 노력과 영화를 향한 진심에 결국 도움을 주었다고.

그는 <비온드 유토피아> 제작진에게 두 번의 탈북 시도를 함께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제작진은 목숨을 걸고 거짓 낙원인 북한에서 탈출하는 노씨 일가족과 아들을 북한에서 구출하려는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운동가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이소연 씨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

김성은 목사는 “탈북민의 실상을 어떻게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이 영화를 보고 관심과 변화가 생겨 고통받고 있는 탈북민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온드 유토피아>는 올해 제96

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출품된 114편의 작품들 가운데서 15편의 예비 후보에 선정됐다. 2023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2023 시드니영화제 최우수 국제 다큐멘터리 관객상을 받았고, 2023 제24회 우드스톡영화제와 2023 햄튼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김진영 기자

## 정동제일교회,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위해 2억여 원 기부

정동제일교회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2억여 원을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항식, 이하 재단)에

최금 기부했다고 재단 측이 밝혔다.

재단 측은 정동제일교회로부터 이 교회에서 기부금 모금을 주도했던 최재

분 원로 장로와 천영태 담임목사가 최근 사무국에 방문해, 교인들이 모금한 2억 100만원 전달받았다고 했다.

정동제일교회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뜻도 밝혔다.

이날 최재분 장로는 포천시 영북면 면장을 지냈던 부친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부친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없었다고 강조하셨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이 너무 늦었고, 우리 세대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높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치 있는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이승만 대통령이 사랑받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1885년 10월 설립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로 기



(왼쪽부터) 조보현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 김항식 기념재단 이사장, 최재분 장로, 천영태 담임목사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록된 정동제일교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 20세가 되던 1895년에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재학당에 입학해 아펜젤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고종 폐위 음모 혐의로 한성감옥에 수감됐을 당시엔 그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6년에 정동제일교회 명예 장로로 추대돼 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사업에 4만 7천여 명이 참여해, 기부금 86억여 원을 모았다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 남편이 순교하고 홀로 남은 나이지리아 여성들

나이지리아 아다마와(Adamawa)주에서 반기독교적 폭력에 남편을 잃은 기독교인 여성 30명이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와 네덜란드 순교자의 소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봉틀과 분쇄기를 수령했고, 그 기계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훈련받았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이 30명의 기독교인 여성이 자립할 뿐 아니라 반기독교적 폭력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동역 기관인 네덜란드 순교자의 소리가 나이지리아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 30명의 현지 기독교인 과부들에게 재봉틀과 분쇄기를 제공했다. 미화 1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 현금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 후원자들의 동역으로 이루어졌다. 또 과부들은 매일 영적인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립적으로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도 훈련받았다.

현숙 폴리 대표는 “새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이 여성들은 이미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의 다른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사역을 통해 도움 받은 두 여성의 간증을 소개했다.

34세의 마사(Martha: 보안상 성은 공개하지 않음)는 이렇게 고백했다.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아가 된 2명의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무료로 훈련시키며 돕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에서 지원하는 재봉틀을 받은 나이지리아인 기독교인 여성. ©한국VOM

28세의 도커스(Dorcas: 보안상 성은 공개하지 않음)도 감사함을 전했다.

“남편이 풀라리 부족의 공격으로 세상을 떠난 뒤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순교자의 소리의 직업 훈련과 창업 프로그램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순교자의 소리는 핍박을 피해 피신하는 기독교인보다 핍박이 계속되는 현장에 머물기로 결단한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때 한국교회와 비영리 기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다마와 주에 서처럼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핍박을 받는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를 이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피신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공격자들이 더 대담해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 가혹한 박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

이 시리아와 이라크 및 인도 일부 지역에서 목격되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역경의 현장에 그대로 남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명을 받은 성도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것이 바로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실제적인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지원하는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남편이 순교하고 홀로 남은 여성들에게 재봉틀과 분쇄기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을 시키는 사역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당한 기독교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독교인들이 공격당했을 때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는 방법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살게 해주시고 전 세계 성도들의 지원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 여성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형구 기자

www.lxhausys.co.kr

결국  
LX Z:In이거나,  
아니거나

편의성에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창호, 수퍼세이프

LX Z:In



# ‘한마음 한뜻으로 새 출발하는 새해 되길’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 2024년 신년인사회 종교계 대표 덕담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대표총회장·사진)가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종교계 대표로 덕담을 전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경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살아야 한다”며,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 젊은이들이 활기차고 힘찬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여야의 구분이 없는 만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과 한뜻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면,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의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

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며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향해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년 신년인사회는 김진표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정부·종교·경제·사회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최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모습. ©한교총

## 독립 거점교회 10곳 이상 세우고 출산장려금 인상

여의도순복음교회, 2024년 중점 사역 방안 발표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섬김 강화, 교회 직영 신학원 운영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2024년 독립적인 거점교회를 10곳 이상 세우는 한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교회가 직영하는 순복음 영산신학원의 교수진 및 커리큘럼 등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과 목회 문화에 맞게 전면 개편해 교역자 배출 및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2일 사무실을 겸해 열린 지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도 목회방향을 내놓았다.

◆ 독립적 거점교회 10곳 이상 개척  
이영훈 목사는 “현재 마포 영등포 용산지역의 성도들만 모여도 여의도 본 교회당은 차고 넘친다”면서 “교구 버스를 운영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이동 거리가 30분이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도들은 거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수도권에 분포하는 지성인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목회를 통해 성장해 독립적인 거점교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거점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역자들이 모든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성도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한 100만 서명운동 전개와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현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이 출산 가정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해 오던 출산장려금을 2024년부터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참여 폭을 확산하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도 전개한다.

이목사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정도 있지 않나”라며 “출산 장려해 온 결과 이 제도가 출산을 장려해 온 긍정적 측면이 뚜렷하므로 몇 가지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인상 이유를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 측 제공

또 “아이를 많이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며, 신앙을 가진 가정에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하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들을 잘 양육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섬김 강화  
이목사는 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계속해 온 사랑의 실천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굿피플과 연계해 소외계층에 1년 365일 ‘희망박스’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엘리트재단을 통해 전문화된 다문화가정 및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돌봄사업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목사는 “이런 사업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처럼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깊어질 때 비로소 교회의 존재 의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회 직영 순복음영산신학원 운영

이목사는 이와 함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가진 성경론과 절대공정의 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과 목회 문화를 체화한 목회자 배출과 수급을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세워져 운영한 순복음영산신학원을 교회가 직영할 필요

에 따라 김호성 부목사와 김민철 목사(홍보국장)에게 각각 학장과 교무 기획처장을 맡겨 교육과정과 교수진 등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력 인증 문제는 한세대 평생교육원과 연계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했다.

김진영 기자

## 그린닥터스재단, 19년 만에 삼천포 섬마을 왕진 봉사 진행

경남 사천시 신수도서 100여 명 진료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과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현)이 세밀 경남 사천시 삼천포 신수도를 방문해 왕진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봉사지역인 신수도는 19년 전인 지난 2004년 정근 이사장이 1년 동안 매주 두 차례씩 원격 무료진료를 해온 곳이다.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과 온종합병원(병원장 김동현)은 정근 이사장(안과)·윤선희 원장(안정형·이상 정근안과병원)·박석주 교수(부산백병원·신장내과) 등 의사들과 정복선 이사·주연희 간호부장 등 온종합병원 간호사 24명, 자원봉사자 조희역 목사 등 모두 60명의 봉사단을 꾸려 지난 12월 29~30일 이틀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서에서 무료 진료활동을 진행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수도를 찾은 그린닥터스봉사단은 선착장 인근 신수어촌계 사무실에 임시진료실을 설치하고, 이틀간 100여 주민들을 무료 진료했다. 외래진료를 받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급 영양제 처방을 받았고, 어깨나 허리,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은 물리치료까지 받았다.

정근 이사장은 “이번 의료봉사 때 19년 전에 원격 진료했던 몇몇 주민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에는 착찻했지만, 다른 분들은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라서 20년 뒤에도 다시 건강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새해 소망을 밝혔다.

그린닥터스재단이 이 낙도를 찾은 것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9월 12~13일 이틀간 그린닥터스는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꾸려 신수도에서 안과, 정형



그린닥터스 봉사단은 19년 전 원격진료를 통해 배내장 수술까지 받았던 신수도 주민 네댓 분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그린닥터스재단

외과 등 무료 진료봉사를 펼쳤고, 그해 1월 초부터 부산 서면에서 정근안과를 운영하던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신수도의 신수교회 조희역 목사(안과)와 함께 피시(PC)통신을 통해 신수도 섬 주민들에게 무료 원격진료 봉사도 펼친 바 있다.

2004년 신수도에서 원격 진료 보조 역할을 자임했던 조희역 목사는 이번 의료봉사에도 동참했다. 조목사는 “당시 컴퓨터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서로 얼굴을 보고 했다. PC화면으로 환자의 아픈 부위를 직접 보면서 진료했다”며 “정원장이 컴퓨터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려고, 신수도에서 카메라 초점을 맞추느라 꽤나 힘들었다. 원격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교회에 미리 마련해둔 약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번 그린닥터스 봉사단은 19년 전 원격진료를 통해 배내장 수술까지 받았던 신수도 주민 네댓 분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올해 여든둘 최철자 할머니는 62세 때 원격 진료로 배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 이후 지금까지 좋은 시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린닥터스재단 60명의 봉사단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에서 무료 진료활동을 진행했다. ©그린닥터스재단



삼천포 섬마을 왕진 봉사 진행 사진. ©그린닥터스재단

고 자랑했다.

정근 이사장은 또 여든셋 김경자 할머니 집에서 19년 전에 작성했던 김 할머니의 종이 진료차트를 보면서 눈 건강 상태를 살폈다. 김 할머니는 “눈은 끔찍했는데, 나이 들면서 자주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고혈압 등 여러 종류의 약에 의지하고 있다”며 세월의 무상함을 얘기하며 20년 만에 찾아준 정근 이사장과 그린닥터스 봉사단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초고속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직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본격 원격진료를 시범 실시했다. 정 이사장은 “당시 우리나라에 초고속인터넷망이 막 깔리기 시작하

고 인터넷 등장 등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멀리 않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원격진료가 합법화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들보다 먼저 PC통신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시도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2004년 10월 개성공단 내 응급진료소를 운영하는 대북사업자로 지정된 그린닥터스재단이 신수도에서 쌓은 원격진료 시스템을 개성공단 진료소와 부산 그린닥터스와 대학병원 간에도 도입하려 했다”며 “북한 측의 3통 정책, 즉 통행통관통신 불가 방침 탓에 활용하지 못한 건 아직도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 존중과 배려

괴롭힘 없는 직장의 첫걸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은 아니신가요?  
누구나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는 일도 못하는데 월급은 고박고박 받네~

오늘은 막내들이 장기자랑 하는 거지?

김대리! 오늘은 3차까지 무조건 가는거야!

김대리, 커피 안 타고 뭐해?

고용노동부



# “교회, 위기의 시대 하나님 ‘은혜·구원’ 맛보는 장소 돼야”

임성빈(기윤실 이사,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박사(사진)가 최근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홈페이지에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임 박사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는 우리는 역사적 위기의 시대를 함께 경험하고 견뎌내고 있는 동료들이다.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우리는 하나의 세계’다라는 낭만적 세계화의 구호가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마-중 갈등으로 무색하게 되었다”며 “심화하는 신병 전으로 지구촌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국가들은 ‘자국민 우선’과 ‘강대국 우선’을 말하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133편을 노래 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세계화의 모순으로 나날이 심화 하는 지역·국가·계층 양극화,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워지는 사회, 사회 계층 간 이동 이 어려운 ‘세습 중산층 사회’로 상징되는 현대 사회의 모순적 상황, 디지털 전환과 함께 강화되는 확증 편향으로 인한 갈 등 심화의 현실에서 시편 133편을 노래하 기는 쉽지 않다”며 “양극화와 갈등의 심 화로 ‘공정’한 삶과는 더 멀어진 ‘각자도 생’이 현실이 된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경험하며, 노래하고 꿈꾸기는 매 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는 ‘믿음’이라며 “성난 파도 가 밀려오는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자연 적 재난과 남북한 관계를 비롯한 세계적 갈등의 심화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힘은 믿음 으로부터 온다”고 했다. 이어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 체의 전부가 아니며, 오늘의 어려움이 마 지막 결론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 이 믿음”이라며 “믿음은 우리에게 현재의 무력감과 열패감과 고통과 절망을 넘어 서는 희망을, 소망을 준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자들이 탄 작은 배를 깨뜨려버릴 만큼 거센 파도지만, 믿음은 이러한 일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사실에 주목 해야 한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위해서 도 우리 주님은 ‘고요하고, 잠잠하여라’라 는 말씀으로 바람을 그치게 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며 “그런데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진 후, 즉, 위기가 지나간 후에 제자들은 이 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 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임 박사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현 상적인 위기의 극복으로 모든 문제가 해 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준다. 오히 러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이후에 더욱 믿 음의 진정성이 중요해진다”며 “예컨대 코 로나19로 인한 재난 중에도 힘을 모아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지만, 코 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와 교회의 위기 는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 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와 충성과 이해를 요구한다. 그러나 죄인 인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 되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은혜이다. ‘오직 믿음’ 과 함께 ‘오직 은혜’가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해졌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뉴노멀을 이야기하며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시대, 감자 필승을 말하며 생존

을 위하여 가리끼리 부족을 형성해 가는 오늘, 참 위기의 시대이지만,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오늘이 바로 은혜(Gabe)받은 이들이 과 제(Aufgabe)를 수행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 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보고 실현하는 장 소이며 도구가 되어야 한다. 세상 안에 살 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지니고, 그래서 세 상은 사랑하나 세상의 풍조는 거스르며 살 수 있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자”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고후 6:13) 교회다 운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 땅에 희망을 세 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 원한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 “혁신과 변화로 제4차학 비전 이룰 것”

한일장신대 2024년 시무감사예배 드려

한일장신대(총장 배성찬)가 최근 황기 주기념채플에서 시무감사예배를 갖고 2024년 새해를 맞이했다. 이 예배에는 서순석 총회 신학교육부 장을 비롯해 박남석 이사장과 이사진, 배 성찬 총장과 교직원, 재학생 등 100여명 이 참석했다. 예배는 김은주 경건실천처

장의 인도로 김웅수 교무처장의 기도, 이 사 이복생 목사(정읍새힘교회)의 색소폰 즉주, 서순석 목사(총회 신학교육부장)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서 목사는 ‘벤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의 설교를 전하며 “요즘 교회와 신학대 가 위기라고 하는데 진정한 위기는 하나

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 는 것”이라며 “위기 속에서 살아있는 하 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의지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 다. 또 “한일장신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소 중한 일꾼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부름받 았다는 데에 감사해하며 하나님 앞에 무 릎 꿇고 모든 주권을 올려드려야 할 것”



한일장신대가 2024년 시무감사예배를 드렸 다. ©학교 측 제공

이라며 “이를 통해 한일장신대가 영적으

로 변화되어 성령안에서 꽃피우고 열매맺 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배 총장은 “새해에는 모든 구성원 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한다”며 “지난날 믿음의 공동체였던 한일 구성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아픔과 상처를 주게 돼 송구 하다”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또 “우리 대학이 제4차학의 비전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1년간 무보수 총장직

을 수행하며 공동체 의전에 귀기울일 계 획”이라며 “위기가 아닌 혁신과 변화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기도를 당부드린다”고 말 했다. 한편 예배 후에는 새 출발의 의미로 서 순석 신학교육부장과 박 이사장, 배 총 장이 타종하고, 새해 덕담과 오찬을 함께 나누며 건강과 발전을 기원했다. 장지동 기자

## ‘교회친구다모여’ 등, 개척교회 180여 곳에 5700여만 원 기부

‘교회친구다모여’와 ‘햇살공’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개척교회 난방비 지원 프로젝트’에서 838명이 기부한 5713만원을 개척교회 188곳에 각 각 난방비 20만원, 식사비 10만원씩을 기부했다. 이번 모금은 지난해 12월 중순 전북 익 산의 목회자 A씨 가족이 생활고 등 복합 적 요인이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서 시작됐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목 사는 주일엔 카페를 예배당으로 활용하 는 ‘카페 목회’를 하다 코로나19 기간 동 안 카페 운영이 어려워지자 과도한 채무 에 시달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18일 익

산시 팔봉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A 목사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교회친구다모여 측 관계자는 인스타그 램 계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건 을 조금이라도 자극적이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입에 꺼내는 것조차 도 슬프고 무서운 한 평범한 가정의 죽 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문장 한 문장 가슴을 찢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 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 건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 리 모두는 이미 이전 세상과 전혀 달라져

버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 회자가 생활고로 가족을 포함한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떨어 재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다시 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목회 자 난방비 지원 사역을 하던 선교사 부 부 ‘햇살공’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 프 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작은 교회의 목회자 가정의 스스 로를 혼자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길 바라 며,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개척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역자 양성과정 진행

22~23일까지 광주 성지교회에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대표 최새롭 목사)이 사역자 양성과정을 ‘광주&전남’ 지 역에서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22일부터 23일까지 광주 성지교회(담임 이재환 목사)에서 열리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의 제 3기 양성과정이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측은 이번 과 정에 대해 “광주 광산교회, 선한이웃교회 에 학원복음화 세미나를 진행했고 이후 5곳에 초·중·고등학교 기독교동아리가 세 워진 지역”이라며 “이 열매들을 통해 광 주&호남 지역 교회와 기독교사들이 학 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자 양성과정을 광주&호남 지역에서도 진행해줄 것을 요 청하여 이번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의 강사로는 학원복음화인큐 베이팅의 대표 최새롭 목사와 오희교회 중등부를 담당하는 박성광 목사, 좋은교 사의 학교복음사역위원장 김선배 교사, 평촌새중앙교회의 김신유 목사 등을 비 롯해 실제 학교에서 동아리를 개척해 사 역하는 이도훈 전도사(양평동 교회), 김준 영 목사(아버지 마음교회), 정가원 교사 (본오중학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최새롭 대표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 팅 사역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집목한 교회들을 통해 지역 학교에 예배가 세위 지고 있으며,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고 있는 사례를 계속 접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의 기본 사역이 학교에 찾아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

을 전하는 것이 목적 인 것 같이 사역자 양 성과정 또한 지역교회 와 기독교사들의 요청 이 있을 경우 지역도 시로 찾아가 진행하고 있다. 17(안양), 27(분 당), 37(광주&전남) 등으로 이어온 이번 과정은 ‘교회 ↔ 학교 ↔ 가정’을 잇는 선 교적 교회학교 생태계를 지역교회에 인큐 베이팅하여 지역교회를 통해 지역학교마 다 기독교동아리&기도모임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에는 1차 ‘Wake up 광 주&호남’ 학교연합집회에 1천여 명이 넘는 중·고·청년들이 참여해 광주에 있는 학 교와 캠퍼스에 기독교동아리&기도모임 을 세우기로 결단한 바 있다. 이상진 기자



## ‘월터스토프 VS 칸트: 종교인가 이성인가’ 강독 모임

기독교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신학과 사상을 연구하는 지성적 모임인 에라스무스가 2024년의 첫 번째 겨울 강 좌로 ‘월터스토프 VS 칸트: 종교인가 이 성인가’를 12월에 걸쳐 6회 동안 온라인 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의 『종교의 한계 안에서 이성 Reason within the Bounds of Religion』을 함

께 강독하게 된다. 이번 책은 칸트의 주 요 저서인 『이성의 한계 안에서 종교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를 겨냥해 쓰인 책이다. 강독모임을 이끄는 정제기 박사는 2022년 영남대에서 칸트 윤리학과 종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칸트학 자로, 젊은 칸트학자의 시선에서 월터스 토프의 저서를 꼼꼼하게 읽어내면서, 중

교와 이성의 관계에 대한 월터스토프의 입장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2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며, 주교재로는 니콜라스 월터스 토프의 저서 『종교의 한계 안에서 이성』(김지호 옮김, 도서출판 100, 2023)을 가지고 진행된다. 이상진 기자

금용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Shinhan

좋아하는 책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 행복해요

아름스 모여라!

535개 아름스 도서관으로!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꿈 #무한가능성

#상상력 #너희들이미래다 #금용으로일상을아름게

책과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아이들 모두가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신한카드 아름스도서관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책을 읽고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가도록 국내외 총 535개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경험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31

Lead by 신한카드







# “사명이 있는 사람, 결단코 허무한 인생 되지 않는다”

2023 남가주 교회 송구영신 예배 스케치(1)

지난 12월 31일 자정과, 1월 1일 새벽, 남가주 교회들은 교회를 찾은 성도들의 발길로 분주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남가주의 많은 성도들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아왔고, 때로는 찬양으로 지난 한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오길 기도했다.

◆**은혜한인교회 <허무한 인생이 감격으로 넘치는 인생으로>**

은혜한인교회는 오후 10시 <허무한 인생이 감격으로 넘치는 인생으로>(시편 90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극복하고 감격이 넘치는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는가를 목상했다.

한기홍 목사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다. 1월달인데 벌써 12월이 된다. 세월 앞에서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낀다. 세월 앞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나의 삶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려야 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들면서 초라해지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하나님 계획은 절대 그게 아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면 안된다. 감격스러운 새해, 내일이 기다려져야 한다. 이런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 감격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 - 첫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 지혜롭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기쁨을 구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하면 감격의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첫째, 모세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시편 90:1-2) 육체를 가진 우리는 불과 몇 십년을 산다. 육체는 한계가 있다. 육으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육신의 한계, 작은 생각 가운데 묶여 있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길 바란다.”

“두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들였다.(시편 90:3) 죽음이 왜 생겼는가? 죽음이 왜 인간에게 왔는가? 죄 때문이다. 모세는 인간이 이렇게 늙고 연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임을 알았다.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고 죄의 저주로 심판을 받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고통과 슬픔이 찾아 오게 되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될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우리 실상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는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뭔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살 길이 열렸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22) 인류가 그토록 두려웠었던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허무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살 길이 열려진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고 짧다는 것은 허무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살 그 세계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당히 무의미하게 살 수 없다. 모세는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사는 인생에 대해, 베드로전서 4장 7-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설명했다. “이 세상에서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천국 가기 전에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정말 사랑해도 얼마 시간이 없다. 새해에는 좀 더 남을 대접하고, 부지런히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황금률이다.”

“네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과 기쁨을 구하였다(시편 90:13-15)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슬픔과 수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 세상의 삶이 곤고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많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순종하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긍휼을 구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있으면 승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기홍 목사는,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비결을 사명의 발견과 사명의 성취에서 찾았다.

“다섯번째, 힘들고 어렵고 자기 인생을 비판하는 허무한 인생이 안되고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사명을 위해 자신을 다 쏟아 부으니 허무하다 느낄 시간이 없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나성순복음교회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  
나성순복음교회는 예수님의 여정을 주제로 한 칸타타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다. 진유철 목사는 “엄청난 사건, 위기, 갈등의 소식을 들었다. 잔잔한 파도에서는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겪은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2024년을 멋지게 날아 오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희망을 선포하며 칸타타의 시작을 알렸다.

칸타타 이후 전도상과 우수구역사의 수상식에 이어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눅 4:18-19)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2024년이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희년이 지닌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살이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했다. 그런데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땅을 남에게 넘겨주고 돈을 빌려 쓰는 일들이 생겼다. 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식을 종으로 넘겨주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가정과 국가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배한 원래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게 하셨다. 가난해서 팔 수 밖에 없던 땅을 희년이 되면 돌려받는 것이다. 종되었던 사람들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해방되게 하셨다. 또한 모든 빚은 탕감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놀라운 은혜의 소리였고 희년은 모두에게 복된 해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종이 되길 원치 않았고 빚으로 고통받길 원치 않았다. 희년을 맞이하면 병자도 일어났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소망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희년을 기다렸다. 희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눅 8:1-2) 저는 이제까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만나 보았다. 죽을 직전에 있던 사람, 마약과 알콜에 망가진 사람, 질병의 고통에 빠진 사람, 탐욕에 몸부림치며 가정이 망가진 사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놀라운 해방과 자유가 임한다는 것은 한번도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 그것을 깨달았다.”

진유철 목사는 이 해방과 자유가 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며, 그럴 때 내 능력과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해방과 자유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이다. 그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지만,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이민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선포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이 주

시는 놀라운 역전승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된다. 주님의 해방과 자유가 내게 누리지기 위해서는 선포해야 한다. 어떤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 어떤 직장과 사업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선포하는 주님은 승리를 주신다. 내 능력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질병, 사망보다 크다.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024년은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선포했다.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 들이고 총만해야 한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그러면 내게 없었던 능력이, 내게 없던 비전, 내게 없던 용기가 생겨난다. 그래서 희년의 예수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베델교회 <주의 뜻이면>**

베델교회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3-17절, 스스로를 자랑하려는 욕망

을 내려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되심을 인정해야 할 것을 설교하며 지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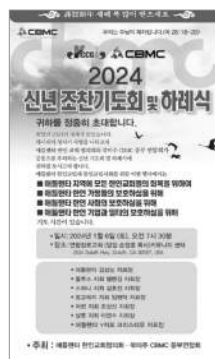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지막을 주관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죄다. 그 여러분의 계획이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우리에게는 교만함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읽어버리는 것 중의 하나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라는 자랑이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로는 비교도 안되는,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셨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된 것이 더 낫다.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새해가 밝아 올 것이다.

<계속> 토마스 멧 기자

## 교협, CBMC 공동주최 신년 조찬기도회 앞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류근준 목사)와 북미주 CBMC 중부 연합이 공동주최하는 2024년 신년 조찬 기도회가 1월 6일 오전 7시 30분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담임 손정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주최측은 “새시대의 청

지기 사명을 다하고자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와 북미주 CBMC 중부 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신년 기도회 및 하례식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애틀랜타 지역에 모든 한인교회들의 회복을 위하여, 애틀랜타 한인 가정들의 보호하심을 위해, 애틀랜타 한인 사회의 보호하심을 위해, 애틀랜타 한인 기업과 일터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한다.

앤더슨 김 기자

소화 · 정 장 · 변비 · 영양에는

일반의약품 Since1956

원기소플러스 정

원기소플러스 정

원기소플러스 정

원기소플러스 정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약품 | 주 인터넷 창에서 원기소플러스, 원기소 를 검색하세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17-1405-1900

효모 · 효소 · 유산균 · 복합제제

腸(장)은 비우고, 영양은 채우고 소화력은 높이세요

✓ 효모는 각종 성분의 영양공급원입니다

✓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고 활성화해줍니다

✓ 유산균은 저하된 장기능을 개선해줍니다

✓ 효모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 효모속 비오틴 성분은 탈모를 예방합니다

✓ 어린이, 남·녀·노·소, 누구나 복용 할 수 있습니다

| 효능 · 효과 | 소화불량, 소화촉진, 정 장, 변비, 영양, 과식, 체할, 설사, 묽은변, 구역, 구토, 식욕감퇴, 식욕부진, 복부팽만감, 위부팽만감, 장내이상발효.

| 복 용 방 법 | 물과 함께 삼켜서 복용, 또는 입안에서 녹이거나 씹어서 복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72-1 소비자 상담 : 02-407-5535, 02-533-2992



#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전 세계 국가와 국제기구, 언론 등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이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책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Mary Nell Wyatt, 리진만 역)이 지난 12월, 발간 1개월 만에 2쇄를 인쇄할 만큼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고고학자이자 열렬한 성경 연구자였던 론 와이엇(Ron Wyatt)은 성경의 렌즈를 통해 오늘날 많은 전문가와 종교학자들이 정통으로 인정하는 성경에 언급된 여러 장소를 발굴했다.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남편 론과 저자 메리 와이엇이 발굴하고 정리한 자료들은 이제 신뢰할 만한 출애굽 시대의 연대기, 진정한 홍해 횡단 장소, 진정한 시내산, 진정한 노아의 방주로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책은 우리의 흥미를 끄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희소스(헷 족속),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출한 공주(네페루레)와 모세의 왕궁 생활에 관해 궁금증을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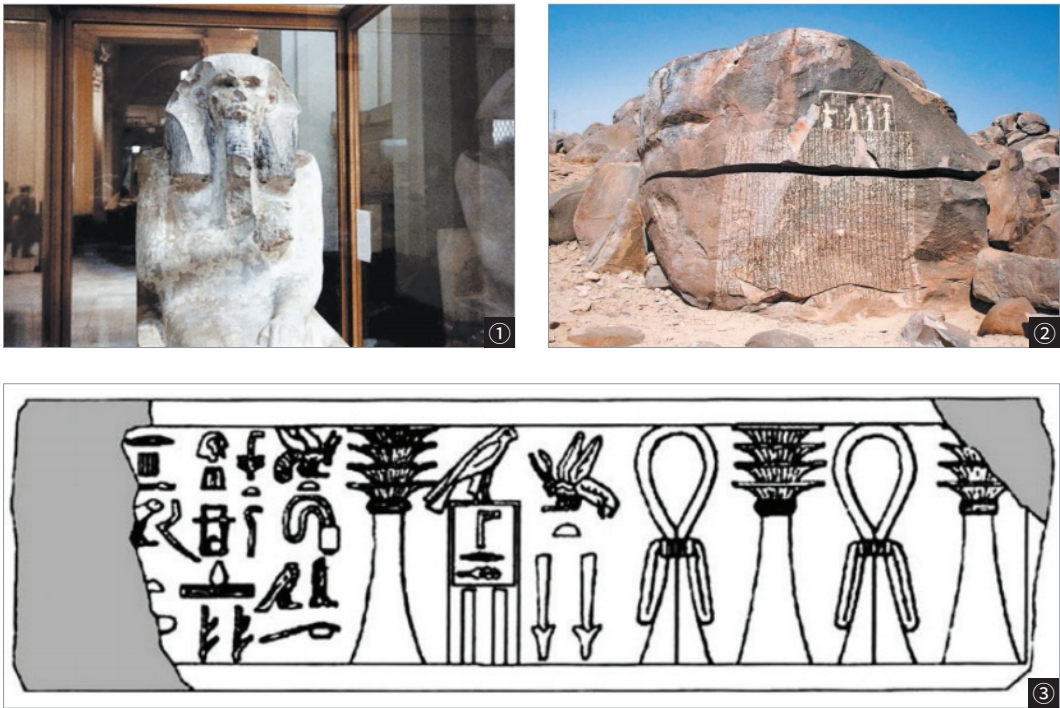
출애굽 진실에 관한 저자의 30여 년간의 끈질긴 탐구 결과물로, 익히 영어 원서 『Battle for the Firstborn』은 ‘미국 아마존 화제의 도서’로 영어권 크리스천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독일보와 선교신문은 번역본을 주제별로 발췌해 소개하려 한다.

성경을 지짐으로 삼으려면 요셉에 관한 성경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야 한다. 이집트에는 당시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쉽다. 그러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정보가 있다.

요셉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셀어를 사용하는 가족이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다. 창세기 40장 15절에서 요셉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그의 형제들에 의해 미디안 무리에게 팔린 것을 언급한다. 요셉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주제에 매우 중요하며 창세기 30-50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제3왕조의 조세르 동치 기간에 이마우스, 즉 임호텝이 살았는데, 그의 의학적 기술 때문에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아스클레피오스(그리스의 신)의 명성을 얻었고 다름은 돌로 건축하는 기술의 발명가였습니다.”

학자들이 임호텝이라는 실존 인물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기술이었다. 그러나 1926년에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에서 발굴 작업을 수행했을 때



①사카라에서 제3왕조의 파라오 조세르 ©Mary N. Lee ②기근 석비 ©Wikimedia Commons ③임호텝의 청호를 가진 제3왕조의 파라오 조세르(Djoser)의 받침대 ©Wikimedia Commons

파라오 조세르(Djoser) 동상 조각이 발견되었다. 기지에는 조세르의 이름과 그의 두 번째 지휘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임호텝, 하부 이집트 왕의 총리, 왕 아래의 수장, 위대한 궁전의 관리자, 세습 군주, 헬리오 포이스의 대제사장, 건축자, 조각가, 돌 꽃병 제작자...”

창세기 41:40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43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44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하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파라오 밑에서 요셉의 지위는 다른 많은 직원 중에서도 총리의 지위였으며, 임호텝은 고대 이집트에서 것처럼 방대한 권한을 가진 최초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 I. 기근 석비

임호텝과 요셉을 연결하는 증거는 나일강 제1폭포 바로 아래에 있는 시헬 섬 큰 바위에 새겨진 놀라운 비문이다. 이 비문은 조세르가 동치 18년에 작성한 문서의 사본이라고 주장한다.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는 지 1,0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으며 계속해서 7년의 흉년과 7년의 기근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었지만 고대 이집트인의 집단적 기억 속에서 여전히 사실로 믿음을 보여준다.

비문에는 조세르가 나일의 신 크눔에게 드린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의 사원 사제들을 제

외하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실은 왜곡되었지만, 분명히 요셉의 성경 이야기와 비슷한 고대 기원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47:26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공 발에서 거둔 것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유사한 비문이 필레(Philae) 섬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조세르가 같은 목적으로 그들의 신에게 같은 선물을 주었다고 말하는 이시스(Isis)의 사제가 있다. 홍수의 이야기가 거의 모든 고대 글에서 발견되지만, 그들 자신의 목적과 신에 맞게 왜곡된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이 경우 이야기는 또한 특정 땅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다양한 신의 사제들에게 필요에 맞게 왜곡되었다.

성경 기록의 모든 주요 구성 요소는 고대 신들과 함께 이집트화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비문에 나와 있다. 이 비문은 기원전 2세기에 크눔(Khnum)의 사제들이 일부 토지 특권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쓴 것으로 여겨진다. 비문 일부에는 파라오가 일부 땅과 세금을 신에게 바쳤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카라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가 처음으로 매우 강력한 국가가 된 것은 조세르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계속>

※이 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투탕카멘의 죽음』에서 발췌해 소개합니다.

글: 메리 넬 와이엇(Mary Nell Wyatt)  
번역: 리진만

# 한국오픈도어 “박해 현장 중심의 선교 모델 제시할 것”

김경복 사무총장, 2024년 한국오픈도어 사역계획 밝혀

한국오픈도어가 새해를 맞아 국제오픈도어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역을 선택 및 집중하고, 특히 박해 현장 중심의 선교 모델을 한국교회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오픈도어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최신 호(1월호)에서 2024년 사역계획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제오픈도어는 현재 약 69개국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존 사역을 지원하는 것과 해마다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며 “전자는 전 세계 약 69개국의 나라에서 해마다 추진되는 현장 사역의 기간이 되는 것이며, 후자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연간 약 3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로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오픈도어는 앞으로 이러한 국제오픈도어 사역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국제오픈도어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박해 현장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교회와 매칭하여, 박해 현장 방문, 현장 사역 참여, 기도와 물질로 직접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선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복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이미 오픈도어를 후원하는 지역교회와의 지역별 연대를 강화하고, 선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며, 오픈도어

사역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저희는 지금까지 세계선교에 어느 나라 민족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실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전 세계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오픈도어는 △1월 월드와치리스트(박해지수) 발표 △2월 지역별 월드와치리스트 설명회(경기, 충청, 강원) △3월 지역별 월드와치리스트 설명회(호남, 영남, 제주) △4월 중동(MENA)의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순회기도회(지역교회별) △5월 아프리카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순회기도회(지역교회별) △6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순회기도회(지역교회별) △7월 IPM(중앙아시아) 사역현장 방문(개인별, 교회별 참가자) △8월 IPM 사역현장(미얀마 혹은 인도) 방문(개인별, 교회별 참가자) △9월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지역교회별) △10월 제3회 머스키슬론 한국대회(9-10 일-네덜란드인 30명-연천, 철원) △11월 IDOP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한 국제기도의 날 △12월 전 세계 박해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절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 군산선교역사관 착공, 연말 완공 계획

2일 ‘첫 삽’... 선교기념탑 건립도 추진

군산 지역 근대사를 이끈 선교역사를 기념하는 ‘군산선교역사관’이 2일 구암동 334번지 건축 현장에서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고 군산시가 최근 밝혔다.

군산선교역사관은 멜본디여학교의 외형을 본떠 1동 3층, 연면적 999㎡ 규모로 지어지며, 전시실, 수장고 등의 전시공간과 기획전시 및 교육 공간, 체험실, 카페, 사무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총 예산은 60억 8,000만 원이며,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역의 교육, 의료, 항쟁 등 근대사 전반에 영향을 준 선교역사를 기념하고, 지역사회 복원 등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선교역사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선교역사관 건립에 대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간마을여행 등 주변 관광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는 작년 12월 전킨기념사업회, 군산선교역사관 건축위원회와 함께 ‘선교기념탑’ 사



군산선교역사관 조감도 ©군산시

업도 추진 중이다. 선교기념탑은 사래교 인근 근린공원에 선교사의 배와 돛을 형상화한 높이 7m 규모의 조형물로 세워질 예정이다.

한편, 군산은 1895년 드루 의료선교사와 전킨 선교사가 군산 수덕산과 구암동 일대에 교회와 함께 구암병원, 영명학교, 멜본디여학교, 안락소학교 등을 설립하면서 지역 사회의 교육과 의료의 기초를 놓았다. 특히 이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는 3.5만세운동 등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됐고, 구암동산은 지금도 항쟁의 역사가 살아 있는 장소로 군산의 정신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주변 시세대비 30% 낮은 분양가

최대 5억 저렴한 혁신적인 공급가

부담 없는 실투자금

중도금 전액 무이자

청약통장 무관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알짜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성향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가치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불수록 합리적인 여유가!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

2.6미터 층고 + 2층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매일)

하우스키팅, 팻캐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레지던스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호재 프리미엄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한양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40

세탁·아나자산신탁 위락(주)관백에셋 (주)코우드 세공 효성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외 다름 수 있습니다. ※상기 CG에 표현된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색채, 경관조명, 옥상정식물, 각종 시설물, 명칭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英감리교, ‘남편’과 ‘아내’ 용어 사용 금지하는 지침 발표

영국 감리교회는 최근 ‘포용적인 언어 가이드’를 발표해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용어 사용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한 용어가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 지침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 대화에 용기를 갖고, 때로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듣고, 상처를 주는 언어를 회개하고, 듣는 방법과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명시했으며, 이 지침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된다.

이 지침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삶에서 표현되는 방식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는 생각을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고 ‘남편’과 ‘아내’를 용어의 예로 제시했다. 이 지침은 적절한 대안으로 ‘부모’, ‘파트너’, ‘자녀’, ‘보호자’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이 지침은 이어 “감리교인들이 공통 문화에 의해 소외되거나 악마화된 소수자들을 다룰 때 ‘민감하고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고받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범주를 나열한다”고 했다.

지침은 ‘노인’과 같은 용어를 피해 ‘연령차별’을 피하고, ‘인종’대신 ‘민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장려해 ‘반인종차별적 언어’를 수용하며, 개인의 이민 신분이나 영어 실력을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언어를 피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침은 반유대주의적이고 이슬람 혐오적인 수사도 권장하지 않으며, 또한 감리교인들이 장애인과 신경적으로 다원화된 이들, 정신질환자를 대할 때 용어를 주의 깊게 다루도록 권장한다.

지침은 영국 감리교회가 “성소수자(LGBT+)를 포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고, 개인이 식별하기로 선택한 대명사를 포함해

개인이 선호하는 언어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이 교단은 2021년 동성결합 축복을 승인하고 동거 부부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침은 “개인이 스스로 선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지침은 독자들에게 좌파 동성애자 명예훼손 반대 연합(GLAAD)과 영국의 LGBT 자선 단체인 스톤월을 포함한 비영리 단체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교단의 대변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포괄적인 언어 가이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교회가 가정을 하거나 부주의하게 화를 내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과 대화할 때 이것이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영국 감리교

했다.

감리교 결혼식에서 성별에 따른 언어가 여전히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대변인은 “감리교 교회에서 결혼하는 커플은 예배 중에 어떻게 언급되기를 원하는지 목사와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혼식은 그들이 누구인지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다.

영국 성공회의 진보주의에 노골적으로 맞서는

캠빈 로빈슨 신부는 영국 감리교회 지도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것은 효과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네오마르크스주의적 시도의 징후라고 했다.

로빈슨 신부는 X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성’에 규범성을 무너뜨리려는 비판적 이론이다. 그것은 더 이상 무질서한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모든 것이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비판 이론은 네오마르크스주의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다.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한다. 유행하지만 유독한 이 이데올로기의 방식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든가”라며 “감리교회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명경 기자

## 보코하람에 참수된 나이지리아 목회자 자녀 결혼식 참석한 美목사

미국 뉴욕의 한 목회자가 지난 2020년 테러단체 보코하람에 의해 참수된 나이지리아 목회자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받는 형제들과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사우스 브롱스 인피니티성경교회 선교목사로 섬기며 ‘리DEM(REDEEM)’ 사역을 운영하고 있는 윌리엄 데블린 목사는 인권 변호사 엠마누엘 오게베와 함께 베뉴 주 마쿠르다에 소재한 성 베드로 교구에서 열린 아그네스 안디미와 가브리엘 에구우루브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이번 결혼식의 신부인 아그네스 안디미의 아버지인 라완 안디미 목사는 아다마와주 미차카 지방자치단체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 전 회장이었으며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된 지 몇 주 뒤인 지난 2020년 1월 처형됐다. 결혼식은 그 사건 이후 4년 만에 거행됐다.

자녀 아홉을 둔 라완 안디미 목사는 극단주의자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결혼식 후 포토타임에는 데블린 목사와 오게베 변호사가 가족들로부터 사진을 함께 찍자는 초대장을 받았다. 데블린 목사는 이 일로 인해 너무 감동을 받아 울었다고 회상했다.

데블린 목사는 “우리 둘 다 순교한 목사님의 사모님과 딸, 신앙의 초대장을 받아 순교한 목사님을 위해 그 자리에 서는 영광을 누렸을 때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했다.

데블린 목사는 안디미 목사의 아내인 메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오게베 변호사와 함께 시작한 프로그래밍 예수 치유 트라우마 모임을 통해 그녀를 만났다.

데블린 목사와 오게베 변호사는 플라토주를



윌리엄 데블린 목사(맨 왼쪽)가 메리 안디미(왼쪽) 옆에 서 있다. 엠마누엘 오게베 변호사(맨 오른쪽)가 신부 아그네스와 신랑 가브리엘 옆에 서 있다. ©Egwurube 부부

포함한 다양한 도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오게베 변호사가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테러 피해자를 초대하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었다.

데블린 목사는 결혼식에 미국의 다양한 기독교 교파로 구성된 상위 조직인 CAN과 관련된 다른 목회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순교한 목사를 기리는 행사에 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결혼식 후 데블린 목사와 오게베 변호사는 2011년 성탄절에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마달라의 성 테레사교회 폭탄테러 사건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성탄절 기간,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했다. 풀라니 무슬림 목동들 중 극단주의자로 추정되는 테러리스트들은 12월 23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플라토 주의 기독교인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 여러 마을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2백여명이 사망하고 3백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게베 변호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정부는 수십 년 간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해 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군이 12시간 전에 통보받았다고 한다.

오게베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노력이 말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현 행정부에 “살인자를 찾아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산 채로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세계는 나이지리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인 국제시민자유법치협회가 발표한 2023년 4월 보고서 추정에 따르면, 2022년 나이지리아에서는 5천68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었고 3천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납치되었다.

이명경 기자

## 폼페이오 “바이든 정부서 美억지력 쇠퇴 가속화… 북·중·러 매우 위험”

“이스라엘·중동 뿐 아니라 본토 미국인에게도 위험”

마이클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내가 재임하던 4년 동안 우리가 구축한 억지력의 붕괴 속도를 높이도록 허용했다. 이는 미국 국민에게 해를 끼쳤고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에게도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기 미국 사람에게도 위험하다”며 “넓게 열린 남쪽 국경과 미국이 나서서 가장 신성한 가치를 지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북한·중국·

러시아 지도자는 여기 국내에서도 매우 위험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통일 의지를 내비친 일을 두고 무력으로 이를 가능하게끔 미국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개진했다.

그는 “미국은 시 주석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대만을 힘으로 점령하도록 뒤서는 안 된다”면서 “하와이, 알래스카, 괌 등을 포함해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정찰 풍선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 안보를 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바이든 행정부를 몰아붙였다.

이명동 기자

## 헤즈볼라 지도자 야즈벡, 레바논 국경서 이군 폭격에 사망

이스라엘 폭격으로 경호원 3명 등 7명 동시 피살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의 교전 중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 후세인 야즈벡과 경호원 3명 등 대원 7명이 3일(현지시간) 동시에 피살되었다고 레바논 현지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레바논의 알-자지다 TV 보도에 따르면 야즈벡과 3명의 경호원들이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곳은 레바논 남부 나쿠라 마을의 한 주택에서였다. 다른 3명의 헤즈볼라 대원이 폭격으로 숨진 곳은 남부 마르카바 마을의 한 주택이었다

고 레바논 국영 NNA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앞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폭격과 중화기 포격으로 인해 레바논 남부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2명의 대원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서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에 대한 보복전을 시작하자 이에 대해 수십 발의 포격으로 대응 공격을 시작하면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

차미레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체재건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금융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경조 선택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http://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 우리라는 가로등

앞이 보이지 않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날

우리금융그룹은  
청년들의 한 걸음 앞에서  
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기에  
도전에 드는 부담은 줄이고  
목돈을 모을 기회는 늘려서

어두운 현실에 꿈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청년들 곁에  
우리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PLO 출신 기독교 개종자, “가자지구서 대규모 전도” 예상

1990년대에 파타(Fatah) 정당 및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회원이었던 전직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가자지구의 무슬림들을 기독교로 전향하도록 준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타이시르 타스 아부 사다(73) 씨는 지난 주말 트리니티 방송 네트워크(TBN)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계 미국인 언론인 조엘 C. 로젠버그에게 “중동을 뒤쫓는 폭력과 파괴의 규모가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시간의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라고 말했다.

사다는 또한 이번 전쟁이 지역 내 많은 무슬림들이 하마스와 급진 이슬람교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마음을 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 태어난 전 팔레스타인 무슬림인 그는 전쟁이 끝나면, 대규모 전도를 위해 가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사다는 “하마스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념”이라며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계획 역시 그 일부이며, 거기에 내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아부 사다는 자서전인 ‘한때 아라파트의 사나이(Once an Arafat Man)’를 쓴 저자이다. 주이시루츠닷컴(JewishRoots.net)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는 1967년 6월 전쟁 이후 유대 이스라엘인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린 시절 가족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로 이주했지만, 그는 도망쳐 결국 파타에 합류했고, PLO 전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의 개인 운전사, 저격수 및 암살자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사다는 간증에서 “6일 전쟁 이후 나는 신경쇠약에 걸린 것 같았고 증오심이 계속해서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인원과 규모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며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이 그들보다 많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다”고 회상했다.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소속 테러리스트 출신인 타이시르 타스 아부 사다가 2023년 12월 트리니티 방송 네트워크(TBN)에 출연했다. ©TBN 유튜브 캡처

그는 “나는 한 번 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를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겼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우리 땅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고, 그 땅은 우리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이 그를 찾아 카타르로 되돌려보냈지만, 반복되는 폭력과 법적 문제로 그의 아버지는 서양에서 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사다는 1974년 미국으로 이

행을 떠나 그곳에서 미국 여성과 결혼했으며, 19년간의 친분이 깊은 기독교인 찰리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사다는 1993년 찰리가 자신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할 당시, 영적으로 괴로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찰리는 당시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려면 유대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다는 “나는 완전히 몸이 열어붙었고,

어떻게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며 “그는 내가 유대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의 아랍인들과 마찬가지로 내게 있어서 착한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 뿐이었다”고 했다.

찰리가 신앙성경을 열어 요한복음 1장 1절을 자신에게 읽어주었을 때, 사다는 겁이 나고 꺼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자, 자신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다가 기절했다. 그는 예수가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뒤,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자신의 생명을 예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 이후, 사다의 아내와 아들은 기독교로 개종했다.

2003년, 사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인들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죄와 심경의 변화를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이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체포될 것을 예상했지만, 14시간의 심문 끝에 이스라엘 대령은 그를 석방시켰다. 그는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한때 아라파트를 위해 싸

웠지만, 현재는 기독교인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하며 감정에 복받쳤다. 결국 그 군인도 울기 시작했고 자신을 안아달라고 부탁했다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사다와 그의 가족은 무슬림을 위한 복음 전도 단체 ‘이스마엘을 향한 소망(Hope for Ishmael)’과 중동의 빈곤층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비영리 단체 ‘희망의 씨앗(Seeds of Hope)’을 설립했다.

사다는 로젠버그에게 “가자지구의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며 “현재 팔레스타인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소식통들이 이번 분쟁의 여파로 영적 수확이 거대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사다는 “그것이 내가 성지로 돌아가 가자지구로 이주하여 재건에 참여하려는 이유”라며 “나는 모든 파괴와 일어난 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왜?’라고 물을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실 것이며, 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진 김 기자

## 美낙태권 반대, 세속 공화당원이 종교 민주당원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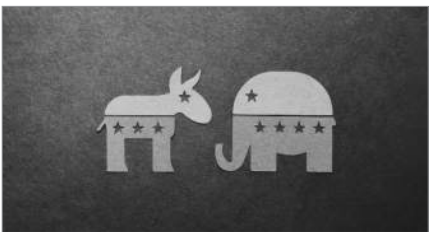
미국에서 종교적인 민주당원들은 종교적이지 않은 민주당원들과 낙태 문제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종교적인 공화당원들은 그렇지 않은 공화당원과 낙태에 대한 견해 차이는 커져가고 있다.

미국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의 정치학 부교수인 라이언 버지(Ryan Burge)는 1일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Substack)에 종교적인 민주당원과 세속적인 공화당원이 가진 견해 차이가 세속적인 민주당원과 종교적인 공화당원의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했다.

그는 2008년과 2022년 공동 선거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두 정당의 유권자를 ‘세속적’ 및 ‘종교적’이라는 두 범주로 분류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두 정당 모두에서 세속 유권자의 비율이 증가했다. 공화당의 경우 종교 유권자가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인 반면, 민주당은 세속 유권자가 종교 유권자를 거의 따라잡았다. 2008년 종교 유권자는 민주당 유권자의 64%를 차지했으며, 2022년에는 52%로 감소했다. 공화당의 종교 유권자는 2008년 87%에서 2022년 79%로 줄었다.

버지는 “다르게 말하면 - 민주당에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상징하는 당나귀와 코끼리. ©Kelly Sikkema/ Unsplash

세속 유권자당 종교 유권자가 한 명씩 있지만, 공화당에는 세속 유권자당 종교 유권자가 네 명이 있다”며 “따라서 세속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좌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선거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낙태에 대한 양당의 세속 유권자 및 종교 유권자의 견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세속 민주당원과 종교 민주당원은 네 그룹 중에서 가장 낙태를 지지한 반면, 종교 공화당원은 제한적인 낙태 정책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종교 공화당원은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불법화하는 것을 가장 많이 지지했으며(27%), 종교 민주당원(13%), 세속 공화당원(13%), 종교 민주당원(6%)이 그 뒤를

이었다.

대다수의 세속 민주당원(93%)과 종교 민주당원(79%)은 “여성의 선택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항상 허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반면, 세속 공화당원(49%)과 종교 공화당원(25%)은 절반 이상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했다.

종교(81%) 및 세속(68%) 공화당원의 상당수는 ‘임신 20주’ 후에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했지만, 종교 민주당원은 41%, 세속 민주당원은 21%만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낙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종교 공화당원(77%)과 세속 공화당원(58%)이 종교 민주당원(26%)과 세속 민주당원(11%)보다 훨씬 높았다. 2010년에는 세속 민주당원의 70%가 어떤 이유로든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2022년에는 그 수가 87%로 증가했다.

낙태에 대한 지지는 같은 기간 동안 세속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 2010년에는 종교 민주당원 중 절반 미만(42%)이 어떤 이유로든 합법적인 낙태를 선호했지만, 2022년에는 거의 두 배인 78%로 급증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낙태에 대한 여론은 정반대로 변화해왔다. 1977년 세속 공화당원의 70%가 여성의 요구에 따른 낙태를 지지했지만, 2002년에 그 수가 50%로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55%로 약간 증가했다.

버지는 종교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지지율이 약 37%로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2000년에는 약 30%로 감소했다가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세속 민주당원의 75%는 ‘여성이 더 이상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으면 태아를 낙태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2022년에는 세속 민주당원의 95%가 피임의 한 형태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같은 기간 동안 종교 민주당원 중 40~50%가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낙태 허용을 지지하다가, 2022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 견해에 동의한 세속 공화당원은 2000년 이후 약 60%에 머물렀으며, 종교 공화당원들은 1970년대 약 47%에서 2004년 이후 약 30%로 감소했다.

유진 김 기자

## 에스토니아, 동성결혼 합법화… 옛소련국 중 처음

에스토니아가 1일(현지시간) 옛소련 연방 국가 중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지난해 6월 에스토니아 의회를 통과한 가족법 개정안이 이날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의회는 당시 동성 결혼 합법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을 찬성 5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성커플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혼인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다.

첫 신청서는 2월2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처리 기간은 1~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한다.

발트3국 동성애자들이 주축인 ‘발틱 프라이드’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에스토니아가 북유럽의 일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에스토니아를 포함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 나라는 2013년부터 동성커플의

시민 파트너십과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여기에 자녀 입양 관리권 부여에 따라 결혼한 동성커플은 합법적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정부 혜택 등 다른 권리들도 갖게 됐다.

에스토니아 인권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53%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34%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에스토니아 인구 4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계는 대부분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디언은 에스토니아가 1991년 옛소련연방에서 독립하면서 동성애를 비범죄화했지만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프라이드 행사 중 탈린의 한 주점에서 성소수자 목사가 흉기에 목이 찢리는 일이 있었고, 성소수자 군 징집병들은 별도의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원 기자

## 김포, 일산 등 주요 도심 속 단독주택 1년에 1억씩 올랐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여가, 워라벨, 쾌적성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더욱 늘어나자 주택 트렌드도 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집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획일화된 아파트가 아닌 독립성과 쾌적성을 갖춘 단독주택이 뜨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편리함은 물론 단독주택의 여유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블록형 단독주택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보통의 단독주택과는 달리 신도시, 택지지구에서도 중심부 일대, 주요 입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급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은

집값도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5월 공급된 L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의 분양가가 5억 2,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1월 9억 7,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 6개월 만에 4억 5,000만원이 올랐다. 1년에 1억원씩 오른 셈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 중원구에 2018년 7월 공급된 K블록형 단독주택 단지 역시 전용 84㎡ 분양가 7억 1,900만원 대비 지난해 5월 10억 1,000만원에 거래돼 약 4년만에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1군 건설사의 브랜드가 적용 됐을 때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다. 경기 김포 운양동에서 2017년 2월 공급된 G블록형 단독주택은 전용 84㎡ 분양가 5억 7,600만원 대비 2021년 11월

11억에 거래돼 4년 9개월만에 5억 2,400만원이 뛰었다.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오른 것이며, 1년에 1억을 초과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블록형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도 적용되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해 희소성이 높다”며, “공동주택의 편리성과 도시의 편의성을 모두 갖춘 만큼 1년에 1억씩 오르는 등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군 건설사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적용됐으며,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불리는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분양 중으로 관심을 모은다. 현대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아 안전한 사업진위성을 확보한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단지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는 옥정지구 B5~B10블록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지상 3층, 전용면적 84㎡, 총 809세대 규모의 대단



▲양주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지로 지어진다. 단지는 계약금 5% 무이자 대출 지원, 중도금(50%) 안심 확정금리 4.5%(이자후 불제)를 적용해 입주 때까지 비용 부담을 낮췄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 투자가치가 높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에 걸맞게 자연환경, 생활인프라를 모두 품은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습지공원 단지들 둘러싸고 있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학교, 중심상업지구 등 도심도 가까워 인프라이용이 편리한 것이다. 인근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인근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으로 접근성도 우수한 만큼 훌륭한

한 채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또한 인근에 다수 계획된 교통호재도 단지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창동역 구간 지하화 문제가 해결된 GTX-C노선 사업도 올해 착공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도 예정돼 있어 프리미엄 상승도 기대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문의: 031-858-9800

###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시행/수탁 **모공약실업** 시공 **현대건설** 시행/위탁 **미래개발2**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주도를 보이지 않게 표현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개발 계획은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행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견본주택 개관중  
(견본주택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1-4)

031)858-9800



#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김창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가정(家庭)은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 맞닥뜨리는 사회 집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최종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남자(male)와 여자(female)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창 2:18-25).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축복하셨다(요 2:1-11).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막 10:6-9)라고 말씀하셨다. 가정은 신성한 공동체다.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해체하거

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여기저기서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있다. 동성끼리 가정(?)을 이루고 동성 결혼을 조장하고 심지어 동성 결혼을 축복해야 한다는 말들이 남무하고 있다.

## 1.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의 대한 성경의 경고

하나님께서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다. 육체적·성적·정신적·심적·영적 결합으로 일평생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부부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부부의 행복한 생활로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의 복도 주셨다. 그러나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셨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다스리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히 13:4).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레 20:13).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

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26-27). 성경은 결혼 밖의 부도덕한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라 가르쳤다. 동성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

## 2. 창세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성한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1). 성경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지금은 어떤가?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자신들의 아내를 서로 바꿔가면서(스와핑, 부부 교환) 성욕을 채우려는 무리들이 무수히 많다. 그런데도 사회는 그들의 행위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처벌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TV 드라마 중에 신

성한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적이 있다. 참으로 우려했다. 곳곳에서 성의 타락, 가정의 타락을 조장하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성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출교할 것을 명하였다(고전 5:1-2).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고전 6:9-10).

## 3. 일부 교계에서는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

영국 감리교회는 최근 ‘포용적인 언어 가이드’를 발표해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용어 사용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그러한 용어가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 지침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삶에서 표현되는 방식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는 생각을 일관 원칙으로 제시하고 ‘남편’과 ‘아내’를 용어의 예로 제시했다. 이 지침은 적절한 대안으로 ‘부모’, ‘파트너’, ‘자녀’, ‘보호자’라는 단어를 제시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한국에 개신교에서도

일부 목회자가 쿼어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하여 교단으로부터 출교 선고를 당했다. 일부 진보라고 자처하는 목회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그들의 행위(?)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 행위를 하도록 여전히 부추기고 있다.

## 4. 한국 교회는 신성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보전하고 건강하고 신성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정하려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정한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거나 수정 보완이 되도록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기고 풍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창 1:27-31, 2:24-25).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귀를 위하여 가지는 성(性)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한국기독교 장로회 헌법에서 인용)

## 5.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1).

“범죄 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딤후 5:20).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교회를 위하여 육신과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3-14).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 순교자 저스틴의 <제 1변증서>



강태강 목사  
World Share USA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으로 알려진 유스티누스(100-165)는 그레고로 마인이다. 유스티누스는 학문에 심취했다. 수사학(인문학), 역사, 그리고 시를 공부했고, 다양한 철학을 공부했다. 다양한 철학을 섭렵한 그는 30세쯤 되어서 기독교에 입문했고 기독교를 변증하였다.

그는 당대에 보기 드문 인문학자였다. 당시 수사학이라 칭했던 웅변술은 인문학이었다. 그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많은 글을 남겼다. 모두 기독교를 변증하는(호교하는)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거의 소실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제 1변증서>,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다. 유스티누스는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에 관하여 그리스도교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그리스도교 철학자다. 그는 그리스

의 우주적 로고스를 그리스도에 연계시키는 독창적인 사상가였다. 그는 자신을 철학자라고 주장하면서 철학자들이 입는 외투(pallium)를 걸치고 순회 설교자로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했다.

그의 이론은 후대 기독교 변증가인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 테오필루스(Theophilus), 터툴리안(Tertullian), 펠릭스(Minucius Felix) 등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 유스티누스는 이단들과 논쟁도 주저하지 않았다. 유스티누스의 이단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영지주의(Gnosticism)와 군주신론(Monarchianism), 사상에 대항했던 후세의 변증가 헤게시푸스(Hegesippus), 이레나이우스(Irenaeus), 히폴리투스(Hippolytus),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등으로 이어진다.

유스티누스의 교향에 관한 정보는 약간 모호하다. 만저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인근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자료는 플라비아 네아폴리스 태생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 자

료는 사마리아 지방에 세워진 플라비아 네아폴리스에서 태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지명을 통합한 것이 그의 출생지라고 본다.

그는 스토아주의(Stoicism), 소오학파(Peripateticism), 피타고라스학과(Pythagoreanism), 그리고 플라톤주의(Platonism)를 섭렵했지만, 그의 내적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철학들에 대한 공허함을 가진 유스티누스는 132년 가이사라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유스티누스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플라톤의 생각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유스티누스가 만난 노인에게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다. 아마도 유스티누스가 당시에는 그 노인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다 후일에 자신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며 그 만남을 정리한 듯 하다. 여하간 그 노인은 철학자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성을 통해 완전한 영적 진리에 이를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의 고대 선지자들에 대해 알려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 유스티누스는 그의 말을 듣고 기독교 진리를 수용하였고 개종했다.

전승에 의하면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에도 철학자로 지냈었다. 유스티누스는 과거 자신이 플라톤 철학자임을 내세웠던 것처럼 스스로 그리스도교 철학자 혹은 그리스도교에 관한 철학자임을 주장하였다. 150년경에 그리스도교를 가르치기 위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앞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호교론자(기독교 변증가)였다. 사실 그를 기독교 역사의 첫 호교론자(변증학자)로 보는 교회사들이 많다. 아울러 그는 평생도 호교론자였다. 그는 이방인 철학자들과 논쟁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로마에서 철학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철학 학교를 통해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물론 철학자를 전도하는 통로는 토론이었다.

유스티누스는 순회교사로 여러 지방을 다니며 토론을 즐겼다. 그는 132년~135년 사이 에베소에서 유대인 트리폰과 종교에 관한 토론을 했다. 이 대화 내용을 155년에 책으로 엮어 펴낸 것이 <트리폰과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 the Jew)>이다. 그가 로마에 머물며 당시 로마의 황제인 안토니우스 피우스(Antonius Pius)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에 의한 박해를 목격하고 그 역울함을 호소하며 기독교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제 1 변증서>와 <제 2 변증서>인데 현재는 <제 1 변증서>만 남아 있다.

유스티누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논리에 편승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우려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는 성품이 비교적 온순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관대한 입장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을 믿고 기독교를 박해하려 했었다. 그러나 유스티누스의 변증서를 읽고 감동되어 체포된 기독교인들을 석방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스티누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를 이어 로마 황제가 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165년경에 박해를 시작하자 황제의 박해를 막아 보려고 변증서를 다시 작성해서 황실에 보냈다. 물론 황제에게 이런 문서를 보내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결국,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황제는 유스티누스의 변증을 수용하지 않았다.

유스티누스는 견유학과 철학자 크레센스라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다 크리센스의 사주로 체포되었다고 전해진다. 간교한 크레센스는 유스티누스가 황제가 아닌 다른 주(Lord)를 섬긴다고 로마의 총독(혹은 집정관) 유니우스 루스티쿠스(Junius Rusticus)에 고발했고, 총독이 유스티누스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유스티누스는 유니우스 루스티쿠스(Junius Rusticus)총독에 의해 6명의 동료 기독교인과 함께 체포되었다. 황제(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총독(유니우스 루스티쿠스)의 심문을 받으면서 유스티누스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고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황제의 신전에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많은 고문을 당한 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SAMJIN 삼진제약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 - 1618 - 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조피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위장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를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 - 082 - 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 세상 최고의 성경



신성욱 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리노에 위치한 헌팅턴 도서관(Huntington Library)을 방문했다. 오래 전, 근처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찾았다. 그곳은 도서관뿐 아니라, 미술관과 식물원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줄 서는 바람에 입장하는 데만도 한참 걸렸다. 그곳은 도서관 외에도 18세기 및 19세기 유럽 미술과 17세기에서 20세기 중반

미국 미술에 중점을 둔 광범위한 미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었다. 또한 '일본 정원', '중국 정원', 그리고 '사막 정원' 등 약 120에이커(49ha) 규모의 전문 식물 조정 정원을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 정원'에는 다다미방 같은 집이 완전 오픈해서 공개되어 있고, 대나무와 단풍이 우거진 멋진 전경을 뽐내고 있었다. '중국 정원'에는 오색찬란한 금붕어들이 뛰어노는 아름다운 연못과 작은 성과 같은 건물들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모두가 사진 찍기에 적합한 장소들이었다. 세 번째 방문한 사막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선인장들이 집결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의 최고 장소가 되었다. 태어나서 그렇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선인장은 처음 구경했다. 하나님의 솜

씨가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거길 방문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뭐니 뭐니해도 헌팅턴에서 내가 가장 방문하고픈 곳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구텐베르크가 제작해서 활자로 인쇄한 최초의 성경책이 있는 장소였다. 목사와 교수의 신분에 그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것 아니겠나. 요한 구텐베르크(약 1397~1468년)가 제작한 성경은 서양에서 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실질적인 책이다. 이것이 등장한 시기는 1455년경이라 한다. 자료를 찾아보니, 최초의 175부의 판본 중 오늘날 48부만 남아 있다고 한다. 그 중 36부는 종이에, 12부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포피지에 인쇄되었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한 헌팅턴은 미국에 있는 세 개의 양피지 판본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엄청나게 큰 크기로 화려하게 제본이 되어 있는데, 개인용이 아닌 기관용으로 돈이 많은 수도원이나 교회의 소유였음을 시사한다. 활자로 찍어낸 최초의 성경책이라 그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성경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발견음을 멈추고 들여다보고 가거나, 아니면 나처럼 사진을 찍고 지나간다. 구텐베르크와 같은 분의 재능과 수고로 인해 성경이 활자로 인쇄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됨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헌팅턴 도서관에 기념으로 전시되어 있는 그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이나 내 스마트폰 속에 들어 있는 성경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놓쳐선 안 된다.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질 않는다. 손에 들고 읽고 묵상해서 은혜받고 변화 받을 수 있는 성경이 가까이 있음에도, 전혀 활용하지 못해서 조금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구텐베르크에 의해 서양 최초의 활자로 인쇄한, 헌팅턴 도서관에 비치된 성경책 한 권의 값은 얼마일까? 팔지도 않겠지만, 값으로 따진다면 아마 어마한 가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값지고 소중한 최고의 성경책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 집에 있는 성경책이나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책이다. 가끔씩 야외에

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다닐 땐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받은 한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수풀에 있는 새 두 마리보다 낫다) 그렇다. 2024년 새해엔 우리 모두가 어느 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종이 위에 기록된 글자라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이 경험될 것이다. 어느 해보다 '성경의 해'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길 소망해본다.

##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하라



박진호 목사  
멤피스커비우즈  
한인교회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리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1-5)

◆무조건 전도하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목회에 관한 여러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권면 중에서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합니다. 전제(奠祭)란 동물 희생제물을 태워 바치면서 술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벌써 전제로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

형이 임박한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충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서 하라고 합니다. 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되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듯이 말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전도를 독려하면서 가장 많이 또 자주 인용됩니다. 바울이 "엄하게 명한" 전도에 관한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어떻게 가르쳐져 왔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장소, 환경,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원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없으며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 시급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무조건 막무가내로 전파해야" 하는 데에 방점을 찍습니다. 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본인의 잘못이자 책임일 뿐이라고 합니다. 또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뒷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신자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아무나 소매를 끌고 들어가 물건을 강매하는 듯 전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손님들과 영업하는데 가게에 쳐들어가 전도합니다. 병원에 병문안 가셔도 같은 병실에 다른 환자들 이 있든 없든 소란하게 찬양 부르고 설교하는 식입니다. ◆때는 어느 때인가? 무조건 전하라는 것이 본문 2절의 뜻이 아닙니다. 전도를 반드시 시급히 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련된 말씀이지 전도하는 방식에 관한 충고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엄하게 명한 근거를 본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고 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즉, 심판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이 반드시 전도해야 할 첫째 근거이자 이유입니다. 그 둘째인 그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때를 얻든 못 얻든"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전도자로서 주님 재림의 때를 짐작도 못합니다. 따라서 그 때를 알든 모르든, 임박했던 안 했던,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니까 열심히 전도하라는 것이 본문 안에서의 뜻입니다. 피전도자의 상황의 어떠한지 간에, 아니면 복음 수용 여부를 문제 삼지 말고 무조건 전하라는 뜻과는 무관합니다. 일부 번역본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라고 전도하는 상황에 적용했습니다만, "때를 얻는다"는 원어의 뜻은 현존하다, 곁에 있다, 임재하다, 임박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2절의 때도 3절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는 것은 3절의 때가 이른 것이고, 못 얻는 것은 아직 이르기 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같은 저자가 같은 문단 안에서 한 단어를 두고 여러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지고, 자기 사욕에 따라 스승을 두고, 자기 원하고 좋아하는 말만 듣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때를 얻지 못한 것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타락하지 않은 것이고, 때를 얻은 것은 바로 그런 타락상에 이른 것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의 문자적 의미는 때를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때를 세태가 진리에 눈을 감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그나마 진리가 먹힐 때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진리에 눈을 감기 시작할 때는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더더욱 전도해야 합니다. 또 진리가 조금이라도 먹힐 때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 더더욱 전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정확히 분별하여서 문제 삼지 말아야 할 것은 피전도자의 개인적 처지가 아니라 각 세대의 영적 흐름입니다. 사악하게 타락해가면 더 전해야 하므로 2절에서 오래 참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므로 꾸준할 것은 하고 시대의 타락상은 물론 이단들의 잘못된 흐름을 잘 경계시키라고 권한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전도할 때는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살펴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내보내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예의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관습을 따라 전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사정 무시하고 전한다는 의미와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의 사상이 책마다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듯 믿음을 강요해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간단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해도 엄병처럼 번져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무조건 전도했는데도 먹혔던 때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 교회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속히 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주님 부활의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었기에 복음이 순순히 먹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서로를 섬겼습니다. 좌악으로 타락한 이방사회와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신자들이 지금껏 보지 못한 전혀 다른 모습의 성결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신자들의 삶을 본뜨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때가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가혹이나 그 위선적인 삶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전도했다간 더욱 역효과만 날 것입니다. 현대는 진밀한 관계에 입각하여 그것도 변증적인 전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실존하여 좌라는 개념 자체도 함께 실존 내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 상황에선 하나님의 실존부터 시작해 그분의 절대성에 대한 납득부터 시켜야 합니다. 물론 아주 힘듭니다. 바울이 말한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망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소리를 골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판을 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품으로 찾아 돌아가려는 본성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자기 실존의 뿌리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극적 진리는 탐구합니다. 거대 담론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외면해도 전혀 알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사실은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시대가 허무하니까 절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면 됩니다. 진리를 타협 왜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하는 내용이 지금처럼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뭔가 불신자가 솔깃해지는 내용으로 흥미를 돋우며 전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변증적으로,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예의 바르고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 진리인지 그들 수준에 맞추어 그들 언어로 전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스스로 갖추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라는 말씀의 참 뜻이자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절실한 전도 방안입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 세상살이 마음먹기 나름

김진홍 목사  
두레수소원



나는 83세 나이에 이르도록 굶은 일,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을 아는 이들은 위로하는 어투로 내게 〈그 고생을 어떻게 견뎌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비록 고생스럽긴 하였지만 신명나게 살아왔기에 보

람 있는 세월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신껏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 여차피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고생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배고파고 고생이지만 배부른 사람들은 살을 빼느라 고생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고생하기 마련인 세상살이에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고생이냐?〉 〈세월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고생이냐?〉가 문제일 따름입니다. 〈보람 있는 고생이냐?〉 〈보람 없는 헛고생이냐?〉가 문제입니다.

세상살이야말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검은 색 안경을 쓰고 보면 검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노랗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비판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뒤틀려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낙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검은 구름 속에서도 한 줄기 햇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꿈을 지니고 그 꿈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변화된 자기만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화를 멈출 때 비로소 늙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변화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올해를 내 생애에서 최고의 해로 만들겠다는 〈변화의 다짐〉을 하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 어게인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펄택



새해가 밝았다. 다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다가와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누리는 것이다. 철학적인 말로 실존을 살아가는 것이다. 새날은 새로운 실존이다.

이제부터 이 새로운 실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선택에 달려있다. 나의 선택이 나를 만든다. 나의 실존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다. 모든 분야에 K-컬처가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조그마한 한반도의 역량이 글로벌하게 퍼져 나

가고 있다. 드라마, K-Pop, 영화, OTT 시리즈, 푸드, 패션, 방산, 의료, 스포츠 스타, K-게이머 등 헤아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심지어 외국인 교회에서 한국인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모셔가는 K-컬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반만년 동안 형성된 우리 민족의 탁월한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음이다.

이 중에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세계적 평가는 상상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해 전 우즈베키스탄을 기본 적이 있다. 한국 대사관과 한국 문화원을 방문했다. 그때 보았던 한글과 K-컬처에 대한 열광하는 광경을 목격한 바 있다.

새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하겠다. 이를 위해 '어게인' 하자.

'어게인'의 사전적 정의는, (같은 일을) 다시 한번(once more), (어떤 일에 더하여) 게다가, 전과

마찬가지, 되돌아와(back) 이런 뜻이다. 그래서 새해의 희망은 '어게인'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해보자. K-컬처로 세계로의 진출을 극대화해보자. '전과 마찬가지로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달려가 보자. 이를 위해 다시 '되돌아와' 자기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류는 사들 수도 있을 것이다.

TV 채널 방송 '싱어게인3'를 보면서 이렇게 뛰어난 싱어들이 발굴되는 과정을 보며 감탄하고 있다. 특히 패자부활전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관문을 통과하는 장면에서 다행스러움을 느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서있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잘 살려내야 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최상의 것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마치 새로운 자기만의 장르를 가지고 나가는 싱어처럼 말이다.

신학적 용어로 어게인은 '회개'를 의미한다. 다시 '어게인'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와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에 답하는 것이 어게인이라는 말이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뜻이다. 영성과 사회성을 돌아봐야 한다.

인간은 어게인 해야 한다. 날마다 어게인 해야 한다. 어떻게 어게인 하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사랑이 사라진 곳에 미움과 원망, 분열, 분쟁, 전쟁이 온다.

새해에는 어게인 하자. 사랑으로 어게인 하자. 사랑은 열망이다. 사랑은 희망이다. 사랑은 황홀한 비전이다. 그때를 기억하고 어게인 해보자.

새마를 운동 정신을 어게인 하자. 88올림픽 열정과 2002월드컵 붉은 물결운동을 어게인 하자. IMF 극복을 위해 '금 모으기' 캠페인 정신을 어게인 하자. 최근 리바이벌하고 있는 이순신 정신을 어게인 하자. K-컬처로 어게인 하자. 새해를 어게인의 해로 만들어 보자.

## 社 說

### 이민청, 저출산·노동력 부족 대안인가

국민주권행동이 법무부가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의 해법으로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주권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매우 위험한 반헌법적 구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의 공식 명칭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다. 지난달 28일 확정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됐는데 향후 5년 동안(2023~2027년) 이민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정부가 이민청 신설 문제를 처음 꺼낸 건 1년 전인 지난해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신설하려는 건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누어 있어, 정책 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돼온 게 원인이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중복·비효율을 막겠다는 뜻이다.

취지는 외국인 정책의 중복·비효율을 막겠다는 건데 실은 출산율 저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가다가 산업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 가동을 멈춰야 하는 공장이 속출하게 될 거란 거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30일 자료 발표한 '월별 인구동향'에 의하면, 지난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05명 줄었다. 이미 시작된 인구절벽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인 노동자를 포함해 2022년 12월 기준 총인구의 5%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증가하는 한국 체류 외국인 수로 볼 때 우리나라도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로서도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좀 더 뚜렷하고 엄정한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걸러내고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추진하는 배경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앞을 내다보는 정책에

국민 정서가 미처 못 따라가는 데 있다. 국민은 외국인인 이민 개방으로 물밀 듯 들어오면 갖가지 사회 부작용이 일어날 걸 염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 의식 속에 단일 민족이란 개념이 강하게 들어앉아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심리도 있다.

국민주권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이민청 추진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가 있다.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찌 국민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가에 의문부호가 붙어있다.

대한민국이 초저출산율로 인구절벽의 위기를 맞게 된 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매년 근원적인 처방보다는 그때그때 땀집식으로 일관해 방만한 예산을 쏟아부었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 현실에서 정부가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 이민청을 들고나오는 자체가 성급한 패배주의라는 지적이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이민정책에 비판적이다.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 환경 때문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빈 자리를 쉽게 외국인으로 채우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민청 추진에 대해선 찬반여론이 팽팽하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이민청 설치에 찬성했으나 이민정책 활성화에는 '동의한다' 50%, '동의하지 않는다'가 46%로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민정책 활성화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인구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건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노인층 비중이 더 커지는 현실에서 문제의 해법을 해외 이민 개방 정책에 두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있다.

이민자로서 이루진 미국은 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민 성공의 모델로 삼아 따라 하기엔 역사성과 국민적 토양에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여 모자라는 국민의 숫자만 채워 넣는다고 그들이 저절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깊은 숙고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민 정책을 한 묶음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별개로 추진력을 확보하는 접근방식이 좀 더 현명해 보인다.

##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일보사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노인일자리 100만 명 이상 채용… 수당 6년 만에 7% 인상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노인일자리 103만명…90%는 1분기 채용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 지원 인력의 90%는 상반기에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8.8% 확대했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 총지출 증가

율 2.8%의 3배 수준이다. 우선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난해 88만3000명에서 올해 103만명으로 14만 7000명 확대했다.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7%(2만~4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력의 90%를 1분기에 채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직접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중에 다 집행하고 효과를 거두려면 1분기에 조기 집행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인 기초연금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최종중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 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난해 5조8000억원에서 올해 6

조4000억원으로 8.7% 늘렸다. 저소득층 선정 기준을 중위 30%에서 32%로 상향하고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폭인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13.2%) 인상했다. 이에 따라 4만5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월 지원 단가도 각각 11만원, 9만원으로 1만원씩 올랐다. 중장년 전직 지원 활성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 발표한다. 40세 이상이면서 1년 이내 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40대 재직자 등의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20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직업훈련 참여 중장년의 생계비 대부 요건도 중위소득 80%~100% 이하로 완화했다. 서다은 기자

## 난임 시술 21→25회 지원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도입

정부가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 관리 주치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임신·출산·노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2025년 이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 구축에 나선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미래 개혁 자문단’

과 ‘재정추계 실무단’도 이날 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20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도 추진한다. 임신·출산·노후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여기에는 난임 시술 지원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하고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등이 담겼다. 치매 관리주치의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 인상,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등 건강보험 지출 구조 효율화도 추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할 방침이다.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 이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누수 요인도 차단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중복 지급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또 올해 내 미래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미래세대비전 및 중장기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우리 기자

## 지방대 ‘수시 미달률’, 서울 소재 5.5배… 80%대 나온 교대도

종로학원, 전국 221개교  
수시 미충원 규모 분석  
서울은 3.4%, 지방은 18.7%

지난 3월 대입 정시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지방대의 수시 마들록 비율이 서울권 대학의 5.5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북 소재 모 4년제 사립대는 수시 모집인원의 90.4%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달률이 50%를 넘는 18개교 중 4개교가 교대인데 이 중 한 곳은 미달률이 80%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전한 시작된 전국 대학 221개교의 2024학년도 정시 최종 모집인원을 바탕으로 수시 이월인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수시 마들록 총원에 실패해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3만 7332명이었다.

이는 대학들의 수시 총모집인원의 14%에 해당하며 전년도 입시와 비교하면 0.1%포인트(p) 상승했다. 대학들은 수시 모집을 마치고 총원하지 못한 이월 인원을 반영해 정시 모집인원을 수정 발표한다. 이를 종전에 대학이 발표했던 정시 모집인원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서울권 대학 42개교는 1628명, 경기권 전 수도권 대학 47개교는 1855명을 총원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했다. 나머지 3만3849명은 지방대 132개교에서 나왔다. 수시 모집인원 대비 미달률을 살펴보면 서울권은 3.4%, 수도권은 4.8%, 지방권은 18.7%로 나타났다. 여전히 지방대의 미충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수시 모집인원의

첨부. 2024학년도 수시 미충원 규모 변화

1) 권역별

권역	학교수	2023			2024			수시 이월 증감
		수시 모집	수시 이월	수시 미충원비율	수시 모집	수시 이월	수시 미충원비율	
서울권	42	46,558	1,386	3.0%	47,199	1,628	3.4%	242
수도권	47	38,533	1,911	5.0%	38,713	1,855	4.8%	-56
지방권	132	177,294	33,149	18.7%	181,254	33,849	18.7%	700
합계	221	262,385	36,446	13.9%	267,166	37,332	14.0%	886

※ 정시내외 / 최근 2년간 정시 모집 인원 공개 대학 221개 대학 기준

2) 수시 미충원 비율별 학교수 현황

미충원률	2023	2024
90% 이상	0	1
80% 이상	1	4
70% 이상	5	7
60% 이상	8	15

◎종로학원 제공

절반 이상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18개교로 이 중 14개교가 지방대였다. 나머지는 경기 3개교, 서울 1개교였다. 미달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90.4%를 정시로 이월했다. 이어 미달률이 80%대인 대학은 4개교, 70%대는 7개교, 60%대는 15개교, 50%대는 3개교로 나타났다. 전년도 수시에서는 모집정원 60% 이상 미달한 학교가 14개교였는데, 올해는 27개교로 2배 늘어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가 한층 심해진 것이다. 학원 측은 수시 미달률 50% 이상인 18개교에 교대가 4곳이나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전년도 수시 미달률이 높은 20위권엔 교대가 한 곳

도 없었다. 전년도 수시보다 서울권 대학 미달률도 0.4%p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권 대학들의 수시 모집인원이 641명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수도권, 지방권 모든 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시에서도 각 대학은 동시합격으로 인한 연쇄적 이동에 따라 추가합격 발표에 매우 적극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대는 오는 6일 정시 원서접수를 마친 뒤 군별로 전형을 실시한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6일까지며 이후 같은 달 21일까지 마들록 총원이 이어진다. 서다은 기자

## SR, 설 명절 SRT 승차권 15~18일 예매

내달 8~12일까지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 대상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에스알이 오는 15일부터 고속열차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 수서발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구매할 수 있는 열차는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다. 에스알은 예매 첫날과 둘째 날인 15일부터 16일 이틀간은 경로·장애인·상이유 공자까지 교통약자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전용 홈페이지, SRT 앱) 및 전화접수(1800-0242)로 우선예매를 실시한다. 이어 17일과 18일에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 이번 설 승차권 예매는 우선예매 기간을 이틀로 늘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교통약자의 예매편의를 높였다고 에스알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16일에는 호남·전라선을 예매할 수 있어 노선별 예매일을 확인해 이틀 중 하루만 예매하면 된다. 또한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은 17일 경부·경전·동해선, 18일에는 호남·전라선을 예매할 수 있다. 에스알은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설 명절 SRT 승차권 예매 전용홈페이지(etk.srail.kr)를 통해 미리 접속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매한 승차권은 이날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하며 전화 접수로 예매한 고객에 한해 2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특히 예매 기간에 판매되지 않은 잔여 좌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 SRT 앱, 역 창구, 무인안내기(키오스크) 등 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예매 기간과 공급좌석 비율을 확대했다”라며 “설 명절을 맞아 고향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고객이 편리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스템 준비와 고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저자 : 송암(松巖) 권 태 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성도들과 신령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아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목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낮아지는 목회자이다. 애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월남전(베트남)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위원회, 한국문인협회원으로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관송가계발전원의 이사장으로서 관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열린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 부동산

### 서울 강서구 단독교회매매

-소재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연면적: 279.8(평)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4층  
-매매가: 27억

연락처 ☎ 010-4621-6428

### 경북 포항 교회 매매

-소재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대지면적(건축면적): 총 212.35평  
-매매가: 3억 3천

연락처 ☎ 010-6780-0467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회매매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면적: 대지면적 460평  
-주차대수: 약 50대  
-매매가: 15억원 (융자 8억)

연락처 ☎ 010-3672-0680

### 부천교회매매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근  
-면적: 대 423㎡ / 건 364㎡  
-매매가: 22억

연락처 ☎ 010-9924-7571

## 신문 광고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천영실(520607-2\*\*\*\*\*) 2019.5.30. 사망  
최후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319 상속한정승인 (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6.26.  
○ 청구인: 천영철  
○ 공고기간: 2024.1.5. ~ 2024.3.5.  
○ 신고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로45번길 14 (경화동)

2024. 1. 5.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조연남(281105-2\*\*\*\*\*) 2019.1.8. 사망  
최후주소: 순천시 송광면 유경길 51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0186 상속한정승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6.22.  
○ 청구인: 1.이강희 2.이강곤  
○ 공고기간: 2024.1.5. ~ 2024.3.5.  
○ 신고처: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5, 7층 (신정동, 동진빌딩) 법무법인 강화 변호사 최희진

2024. 1. 5.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미영(570918-2\*\*\*\*\*) 2020.10.11. 사망  
최후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1길 7 (암사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3년단177 상속한정승인(수원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3.6.20.  
○ 청구인: 이다연  
○ 공고기간: 2024.1.5. ~ 2024.3.5.  
○ 신고처: 경기도 시흥시 매화1로 61, 111동 501호 (매화동, 하이드파크)

2024. 1. 5.

### 상속한정승인공고(심판결정)

망 김형민(650220-1\*\*\*\*\*) 2019.9.1. 사망  
최후주소: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1가길 62 (성북동)

민법 제 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 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2022년단8518 상속한정승인 (서울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2022.2.4.  
○ 한정승인결정(심판결정): 2023.6.7.  
○ 청구인: 1.김영규 2.김지현  
○ 공고기간: 2024.1.5. ~ 2024.3.5.  
○ 신고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15층(서초동, 법조타워)

2024. 1. 5.

## 동해한옥

매매가  
38억

연수원, 힐링센터, 기도원,  
요양원, 한옥스테이카페 추천

-면적: 1,724㎡ (총6채)  
-위치: 강원도특별자치 동해시청 앞

주인문의 010-4071-1011

## 대부도엘림수양관

같이모여 찬양하고 같이모여 부르짖고 같이모여  
성령충만 받는 수문관 광장 성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매월 (1주 3주) 한 주간성회  
월~목요일 저녁까지  
예배시간 안내  
새벽 7:00 오전 10:00  
오후 2:00 4:00 저녁 7:00  
속식무료, 200명수용가능



매주 목요성회  
오전 10:00 오후 2:00  
4:00 저녁 7:00  
강사님을 초청합니다.

성회 강사님을 초청합니다.  
(사회 기도 특송 축도) 모시고 올 수 있는 분  
상담전화 | 031-886-8277

장소\_대부도 엘림수양관  
안산시 단원구 새방죽길 42-21

원장\_김우경목사 / 010-8898-9141  
대중교통이용 전철 오이도역 앞에서 123번 또는 790번  
버스타고 대부도 중학교앞 하차 하면 보입니다.  
전화요금 도로보 10분거리

##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영의교회 담임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 주 목 요 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 특 징 】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 대한민국을 세계1위로 만들 미래 성장 동력사업

기.승.전.프랜차이즈? 세상을 바꿀 사업이 있는데  
왜 불나방처럼 뛰어다니시죠??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산업등 정제된 사업에서 업종 전환을 원하는 업체  
78억 인구를 매료시킬 강력한 아이템  
(투자시 아이템 AtoZ 상세내용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전달)

1구좌 1억원 투자시 법인 1%지분 배당  
: (80구좌 제한 후 커뮤니티로 시너지 발생  
₩ => \$ 가까운 미래 단위 함께 바랍니다)  
: 씨(투자) 뿌리고 꽃(발전) 피우고  
열매(수익결실) 맺는 모습을 투자후 단계단계 마다  
보여드리며 자손대대로 돈걱정 없이 살것입니다

변호사 공증 후 법인지분서류 전달

국민은행 975901-00-026853  
조현철 헬프사람넷  
zhc2000@naver.com, 010 9897 2003  
이체 후 이메일 및 문자 보내주세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 욥 8:7 ]  
※ 본 광고는 역사에 길이 남을것임

## 목사·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및통신신학모집



이시정 양정섭 목사

본원은 57년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  
협의회에 소속된 교단의 인증된 신학연구원입니다.  
본원은 정통칼빈주의에 입각하여 개혁주의 정통보수신학적 신학연구원입니다.  
본 총회신학과 연구원 졸업생은 본 교단에서 고시를 거쳐 총회신학각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부 과정		지 원 자 격	
학부	학 과 학제		
신 학 부	신학과 4년	·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력자 · 본교 규정에 의한 학력소지자	
	목회학과 4년	· 기타학과는 본교 규정에 의한 학력소지자 · 장로 및 연장자는 면접규정에 의하여 특별우대	
	여목회학과 4년	· 여목회학과는 목회자 사모 및 기도원원장 특별우대	

연구원 과정		지 원 자 격	
학부	학 과 학제		
연구부	신학연구과 (Th.M) 3년	· 정규 신학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와 동등학력 소지자 · 본교에서 인정하는 신학과 학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목회연구과 (M.Div) 3년	· 편입생은 본교에서 인정하는 소정의 과정 이수자	

\* 통신신학은 학부 8학기, 연구원 6학기입니다.  
(직장관계나 지방에서 공부할 수 없는 분들의 위하여 통신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타신학교 출신도 면접을 통하여 안수받을 수 있음.(여목제도 있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통총회신학·신학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8길 31 구로우성아파트가트2층 (1호선 인현역 구일역)  
대표전화 (02) 869-0166, 010-9825-2488



##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 원 자 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 본교가 인정하는 타신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서 편입.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와 협력교육기관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5층(INCS행정교육원)



하나님과과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누가 도를 닦아서 진리를 깨닫고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하신다. 요한일서 1장 1-2절을 봅시다. "태초부터 있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토대신 바와 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 바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요, 계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2절이 보니, 나타내신 바 된 것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1절을 보니, 예수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고, 본으로도 만났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입니다. 문일규 '참된 진리를 찾는 당신에게'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79)

로마서 7장 4절

4. So, my brothers, you also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to God.

·So : 그러므로

·my brothers : 내 형제들아

·you also died to the law :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through the body of Christ :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 아는 다른 이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to God. :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나라

▶중요한 단어, 속어

belong to ~에 속하다.raise 살아나다.bear 곱열매를 맺다아이들 낳다.잡다.

bear fruit 열매를 맺다. that 주어 may~ : 주어가 ~하도록~하기 위하여

in order that(=so that)-might : ~하기 위하여.-하도록.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 너희가 다른 이(예수)에게 속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따라서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은 우리다. 율법은 살아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되자 율법이 우리를 죽이고만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우리는 죽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죽였는가? 우리를 죽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 있는 죽은 몸”이다.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어떤 부분은 죽었고, 어떤 부분은 살아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율법은 지난날 우리의 몸을 장악

하고 있었다. 과거 구원받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에게 군림하여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하에 있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을 돌려내 몸으로부터 떼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죽여 버리셨다.

에베소서 2:15-16

15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5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law with its commandments and regulations.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out of the two, thus making peace, 16 and in this 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골로새서 1:21-22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21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and were enemies in your minds because of your evil behavior. 22 But now he has reconciled you by Christ's physical body through death to present you holy in his sight, without blemish and free from accusation--

▶해석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나라

로마서 7장 5절

5. For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the sinful passions

aroused by the law were at work in our bodies, so that we bore fruit for death.

·For when we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the sinful passions : 죄의 정욕이

·aroused by the law : 율법으로 말미암는

·were at work : 역사하여

·in our bodies : 우리 지체 중에

·so that we bore fruit :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for death. : 사망을 위하여

▶중요한 단어, 속어

at work 일하는역사하는 passion 열정욕망열애,소교자 수난기

the Passion : (십자가위의)예수의 수난기, the Passion of Jesus Christ

arise(arose-arisen) 일어나다나타나다발생하다(태양연가) 솟아 오르다일어서다.

control 지배하다.통제하다. wer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 육신에 지배를 받다. bear fruit 열매를 맺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돌려내시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 버렸으며 이로써 우리의 육신은 이제 죽었다. 죽은 육신은 우리의 과거 남편이었고 우리의 혼은 과거의 남편의 아내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과 혼이 한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다(마 19:6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육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죽임을 당해 버림으로써 남편은 죽은 셈이 되었고, 아내인 혼만 살아남게 되었으며, 그 혼은 이제 독신으로 자유롭게 되어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 곧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

성경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요 3:6)”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17)”고 말씀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냥 살려 둔 채로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돌려내고 우리와 혼인하셨다면, 그분께서는 간음하신 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몸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혼관계에 있었던 우리의 몸과 혼은 “사람”이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갈라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놓은 것을 사람은 갈라놓지 못한다(마 19: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혼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분과 혼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해 놓으셨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절과 3절에서 언급되었던 “남편”이란 우리의 몸을 일컫는 것이었고, “여인”은 우리의 혼을 지칭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 남편이었던 육신이 죽고 아내였던 우리의 혼이 주님과 “재혼”한 것이었다. 아멘

갈라디아서 5:22-24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24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its passions and desires.

▶해석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오늘의 예화

남의 필요를 채우면 나의 필요도 채워진다

쉴라 월쉬는 YWAM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중에 계획하고 있는 전도 활동에 참여하기 원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쉴라는 재정을 놓고 기도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돈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런던에서 뉴욕까지의 항공비로 충분했고, 몬트리올을 행 버스를 탈 돈도 되었다. 그러나 뉴욕으로 돌아오려면 여전히 70달러가 부족했다. 일단 쉴라는 몬트리올로 가서 1,600명의 자원자들과 함께 두 주간 전도 활동을 했다.

나는 편도 티켓만 가지고 믿음으로 몬트리올에 온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자원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돈이 필요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다.

쉴라는 거기서 63달러를 얻게 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자신이 갖고 있던 7달러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리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 그럴 순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성령의 이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쉴라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7달러를 주기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쉴라는 자신의 눈에 띈 금발 머리의 처녀에게 7달러를 주었고, 그녀는 ‘꼭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에요!’ 하며 밝게 웃었다.

다음날 아침, 모두들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다. 그때 누군가가 쉴라를 불렀다.

‘쉴라 월쉬 씨 맞지요? 여기 계시는 동안의 수업료를 더 많이 내셨더군요.’

쉴라는 집행부 직원이 손에 건네 준 봉투를 열어 보았다. 정확히 10달러 지폐 일곱 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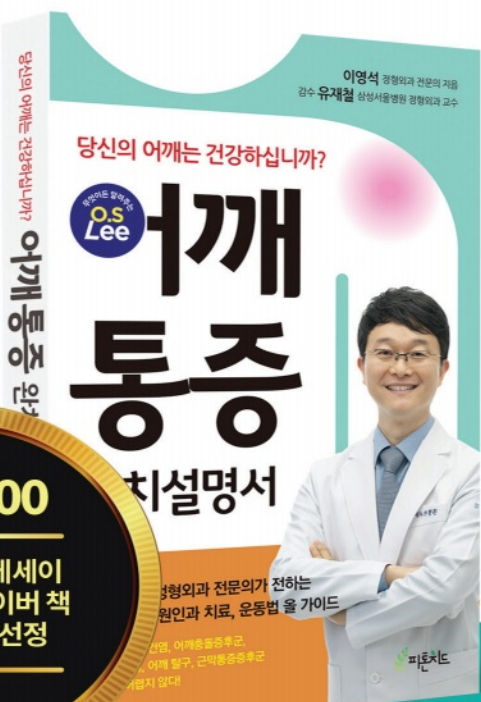
「백랑 끝에 서는 용기」 / 로렌 커닝햄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신앙과 가정 Rule은 같아야 합니다

얼마 전 살고 있는 집의 association에서 봉투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몇 달 전에 regulation을 바꾸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당신을 포함한 1000여 명의 yes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으니 속히 투표지에 기표를 해서 보내라는 일종의 독촉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라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용된 문구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이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no라는 의미이니 그러지 말고 yes로 찍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냐, 민주사회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싶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협박적입니다. 이 편지를 무시하지 말라, 당신이 응답을 안 하면 사람을 보내야 하니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1000여 개의 yes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

지였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Yes or No를 선택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Yes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마, 제가 보낸 투표용지도 못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투표를 안 하면 그냥 no라고 알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정중하게 물을 것이지 왜 답을 강요하는지 정말 불쾌한 생각이 들어 혼내 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평생의 rule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떠한 rule이 작동을 합니다. 법으로 정한 rule이든, 통념상의 사회관습이든, 그 사회를 끌고 가는 규범(rule)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갈등의 요인이 줄어들고,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되어야 평안하기도 합니



다. 이런 것들은 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운동이 운동 될 수 있고, 갈등도 없이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에

다른 운동의 규칙을 적용하면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툼과 분쟁의 여지만 남을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

야 할 공통적인 규범(rule)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규범은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말하고, 주장하고, 행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와 세상이 좋아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몰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에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서 교회의 어른들이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목표를 위하여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다른 규칙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다툼의 근원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영향

력이 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본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그럴 때조차에도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나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가 다른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묵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묵양지에서 그들의 묵회 철학을 구현하면서 묵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묵회 철학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라고 대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묵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보기에 좋은 것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철학에 따른 것이냐, 성경적인 것이냐? 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 rule이 다르면 안 됩니다. 세상이 참 복잡해졌습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 성지순례

## 2천년 된 종려나무 씨앗이 싹트다(2)

사면 수직 절벽으로 이루어진 맛사다를 고대의 전쟁 방식으로는 함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로마 군대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로마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안 저항 세력은, 노예가 되느니 자유자일 때에 모두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로마가 맛사다를 함락하기 전날 밤 맛사다에 피신한 960명은 모두 자결하였다. 그렇게 맛사다를 함락한 로마 군대는 소수의 병사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다. 이후 5세기 비잔틴 시대에 소수의 수도사들이 맛사다에 거주하였고, 그들에 의해 정상에 세워진 교회 유적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떠난 후 마사다는 천 년 넘게 역사에서 잊혔다.

이 고대의 맛사다가 일부 성경의 탐험가들에게 소개된 것은 1838년 이후이다. 그리고 맛사다 발굴은 1963-1965년 이가엘 야딘(Yigael Yadin)에 의해 시작되었고, 1989년 이후에는 히브리대학 고고학과 에훤 네페르(Ehud Netzer) 교수에 의해 발굴되었다. 1970년 에훤 네페르 교수는 맛사다(Masada)를 발굴하면서 오래된 종려나무 씨앗 몇 개를 발견하였다. 방사능 탄소 동위원소



이스라엘 크투라 키부츠 내에서 자라는 므두셀라의 모습. ©두루Tentmaker 고문 이주섭 목사

(Radioactive Isotope Carbon 14)에 따라 발견된 씨앗은 약 2천년 전의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고대의 씨앗은 로마와의 전쟁 중에 맛사다에 피신한 열심당원들이 소비한 씨앗으로 추정한다.

네페르 교수는 자신이 발견한 종려나무 씨앗을 식물 고고학자인 모르데하이 키슬리프 (Mordechai Kislef)에게 건넸다. 키슬리프는 예루살렘 에인 케렘(Ein Kerem)의 하닷사 병원 자연 의학 연구소(Natural Medicine Research) 책임자인 사라 셀론(Sarah Sallon)에게 씨앗 세 개를 주었다. 셀론 박사는 이 씨앗을 발아시켜 보려는 생각에 사막 농업학자요 종려나무의 전



이스라엘 키부츠 크투라의 전경. ©두루Tentmaker 고문 이주섭 목사

문가인 일레인 솔로위(Elaine Solowey) 박사에게 건네주었다. 솔로위 박사는 이 고대의 종려나무 씨앗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해초로 만든 특별 영양제를 주는 특수처리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의 식목일인 투비슈밋(Tu B'Shvat)인 2005년 1월 25일에 심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위 박사는 이 고대의 씨앗에 생명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키부츠 크투라의 모습).

그러나 6주 후 종려나무의 단단한 껍질에 금이 갔고, 2주가 더 지난 후에 첫 번째 잎이 깨진 씨앗 틈새로 돌아났다. 이것은 기적이다. 과거에도 고대의 씨앗이 발아한 몇 차례 사례가 있었다. 2

차 세계 대전 독일의 공습으로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이 불에 휩싸였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많은 물이 자연사 박물관에 뿌려졌다. 그 물에 의해 박물관에 전시된 5백 년 전의 고대 씨앗이 싹을 틔운 적이 있으며, 중국 식물학자들이 약 1300년 전의 연꽃 씨앗을 발아시키는 데 성공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마사다에서 발견된 종려나무 씨앗은 2천 년 전의 것으로, 오랜 수면 상태에서 고대의 씨앗이 생명을 드러낸 사건은 놀랍다.

솔로위 박사는 이 종려나무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따라 므두셀라(Methuselah)로 불렀다. 므두셀라는 1970년 발견되어 35년 만인 2005년에 그 생명을 드러내었다. 므두셀라는 현재 네게브에 위치한 키부츠 크투라(Kibbutz Ketura)에서 다른 식물과 격리된 채 자라고 있다. 필자는 2008년 8월 키부츠 크투라를 방문하여 3일을 이 키부츠에 머물면서 고대의 종려나무인 므두셀라의 발아와 성장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당시 므두셀라는 1.5미터까지 자랐고, 약 10개의 잎을 냈다.

이주섭 목사(두루Tentmaker 고문)

### 이야기하나라

## 진정 원하는 것

고대에 그리스 시대에 아주 부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왕이 후계자를 정할 때가 되었는데 왕은 자신의 많은 아내들 중에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그 자녀를 후계자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이었는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진귀한 보물들을 한데 모아놓고 모든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겠다. 왕권만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가져가도 좋다.”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아내들은 서로 진귀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서로 싸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혼자 가만히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 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냐? 갖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아냐?”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중에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도대체 그것이 무어냐?” “바로 왕입니다. 저는 왕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사랑하는 아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까? 주님의 큰 복을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신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복으로 인해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고 알아가게 하소서. 그 어떤 큰 복보다 주님을 더욱 바라며 사랑하십시오. 김정환 큐티365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위해



이선목 목사

예배란 이제 특별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들이 두 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장소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예배를 특정한 장소에만 묶어 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목적은 진리의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현대 교회에서 행하는 개신교식 예전 예배는 카톨릭의 미사에서 유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예배를 행하는 장소인 성전이 곧 내 몸이며,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곧 성도 자신이며, 예배에 사용되는 제물이 곧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예배는 어찌 보면 성경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한 몸이 되어진 교회를 다시 건물 교회로 분리하여 때에 놓았으며, 삶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할 예배를 예배 형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대에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

다. 보는 예배는 TV, 인터넷을 통해, 예배 생중계를 통해 점점 확산되고 신자들은 모이기보다는 편리한 현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더 큰 감동과 더 질 높은 설교에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화면을 통해 언제나 흘러나오는 더 나은 예배 현장에 접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수요는 하나님과 신자의 인격적 예배 현장보다는 좋은 시설을 마련하여 유명 교회의 예배 사진들과 유명 목사의 설교를 중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지도자들의 공급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배란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근본정신에서 이탈하여 우리의 만족, 즉 신자들에게 나타날 예배 후의 감동과 은혜에 치중한 결과인 것이다. 교인들이 느낌과 경험에 치중하는 한, 예배는 하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더 빨리 변해갈 것이다. 집단적 예배 현상은 현대적 이기들과 인위적인 순서들로 더 많이 채워질 것이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더 진한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회를 무대화하고 예배를 각본해 가는 예술가로 변할 것이다.

비단 예배의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한 열정과 헌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근본을 잃어버린 열심은 또 하나의 바벨탑이 아닐 수 없다.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사람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함축해하는 자기만족의 리더자들이 아닌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우리이길

바란다.

간혹 교회의 리더자들 가운데 부흥성회나 특별한 집회를 열고 유명강사를 섭외하고 예배가 특별한 집회 형식으로 진행될 때, 집회가 끝나고 리더자들 간의 이야기가 오고 간다. 집회가 어떠했는지,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는 어찌 보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모여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았는지 열심히 모여 기도한 후 그 생각들을 모으고 나눌 수는 없는 일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특별한 것을 세상의 값없는 공연처럼 모인 사람들의 즐거움과 감동만을 확인하는 예배가 아니길 소망한다.

## ◆ 이선목 목사

4대째 내려오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왔으며 창조적인 목회를 꿈꾸며 문화를 이야기하고 삶을 노래하는 따뜻한 목회를 꿈꾸고 있다. 국제 오웬선교회의 선교사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돌로스 선교선과 영국의 오웬 LUKE와 미국의 오웬 KAM에서 사역을 역임했으며 한국에서는 감리교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미국 아주사대학에서 종교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쳤고 현재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학하면서 숭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천성서신학원에서 목회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 음악목회자 제도의 필요성 (1)

담임목회자와 협조하여 능률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전문화된 목회를 담임목회자 한 사람의 활동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됨으로, 모든 교회 기능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음악 분야에도 전문적인 사역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김남수 교수

특별히 사회, 경제, 교육 등에 비례하여 문화와 예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과학의 발달과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도 많은 회중들이 교회음악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교회 교인들이 예술적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음악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담임목회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능률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특별히 예배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목회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요구되므로 음악목회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인 예배에서 음악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예배의 각 순서 사이마다 음악순서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러한 예배순서를 “찬송가 샌드위치”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것은 예배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시간적 비중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주곡으로부터 시작하여 회중찬송, 기도송, 성가대 찬양, 헌금송, 축도송, 그리고 후주곡까지의 연주시간을 합하면 음악활동 시간은 예배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된다.

이렇게 예배에서 음악은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며, 예배는 음악으로 시작하여 음악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음악 활동은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기능인 교제, 선교, 그리고 교육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 있다.

둘째, 회중의 음악적인 필요조건을 공급하기 위하여 음악목회자의 활동이 필요하다.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교회음악 활동에도 매우 민감하다. 그렇다고 이들이 반응하는 필요성을 순수예술만을 통하여 채울 수는 없다.

교회음악이 존재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며,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음악적인 도구를 알맞게 사용한다면 교인들이 요구하는 필요성을 공급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목회활동을 할 수 있다.

## ◆ 김남수 교수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와 신탄진침례교회 음악목사(역임),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로서 섬기고 있다. 제45회 신인음악회(조선일보)로 데뷔하여, 21회 동아콩쿠르 입상, 18회 난파음악제 우수상, 18-19회 서울음악제에 연속으로 당선했으며, 대전광역시로부터 위촉을 받아 국악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大田詩曲”(2001)을 발표했고, 합창곡 『새 노래로 여호와의 찬양(2002)』을 출간했으며, Southern Seminary로부터 “Distinguished Composition Award(2003)”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예배와 음악(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요단출판사, 1995)』, 『음악목회의 실제(요단출판사, 1996)』, 『침례교찬송가: 복음찬미(요단출판사, 2005)』, 『찬송의 이해(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가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회에서 발표한 “21세기 찬송가를 위한 제안” 등 많은 논문이 있다.

## 명품은 마무리가 다르다



정유성

명품과 가품의 차이는 원단의 차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테리 명품 가죽가방의 원단을 제공하는 가죽공장 에서 똑같이 원단을 받아가 도 하나는 명품이 되고 하나는 가품이 됩니다. 이유는 하 나입니다.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 명품을 만듭니다.

디테일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를 들어보려면 저는 ‘끝처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기건 옷이건 가방이건 건물이건 끝처리, 즉 끝마무리를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꼼꼼하고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고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바느질 한 뼀, 실밥 하나에도 정성과 마음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찬양인도에 명품이니 가품이니 하는 개념을 대입시키는 것 자체가 불량(?)스럽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인도자들은 디테일에 강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디테일은 곡과 곡의 연결고리입니다.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곡 그 자체는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도 다음 곡이나 다음 순서와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만들어 놓지 않으면 ‘휘청’하며 전체 흐름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다양성과 안정감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디테일은 뛰어난 실밥 자르기입니다. 찬양을 준비하다보면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아~ 맞아 그자~’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바꾼 가사의 자막이건, 튜닝이건, 땀을 닦을 수건이건, 코드 몇 개이건... 그 부분까지도 인도자는 놓치지 말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디테일은 멘트입니다. 멘트는 너무 길어도 문제, 너무 짧아도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미리 적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리 적으면 쓸데없이 주저리주저리 길어지는 말을 막을 수 있고, 꼭 말해야 할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명품 찬양인도자... 좀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 짧게 나눠봅니다.

## ◆ 정유성

감리교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유다지파’와 ‘부흥한국’에서 사역했으며 〈물가 운데 지날때에도〉, 〈하나님 눈 길 머무신 곳〉을 비롯하여 여러 곡을 작곡했고, 미국 열바인 소재의 베델한인교회에서 9년째 사역 중이다. 2009년부터 포뉴마 워십(www.pworship.com) 사역을 시작하면서, 찬양과 예배의 현장을 유튜브와 무료 방송사역을 통해 활발하게 나누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 가수 청하, 초록우산에 저소득 가정 환아 의료비 지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가수 청하가 저소득 환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초록우산 고액 기부자 모임 그린노블클럽 멤버인 청하는 2019년 환아 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아동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초록우산을 통해 선천성 구순 구개열로 인한 안면부 교정 수술, 무릎염으로 인한 골연장술 등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청하는 지난해 2월에도 자신의 27번째 생일을 기념해 팬클럽 별하랑 이름으로 귀 재건수술, 희귀 질환, 극심한 피부 질환 등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아동을 지원했으며, 올해 다시 경제적 환경과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아동을 위한 나눔에 나섰다.

청하는 이번 기부와 관련해 “거듭되는 치료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갈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하루 빨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경제



초록우산은 가수 청하가 저소득 환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적 고층과 건강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청하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린이 곁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 캘리그래피 문화선교단체 ‘청현재이’, 새 장소에서 첫 전시회 열어



캘리그래피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문화선교단체 청현재이(대표 임동규 회장)가 신년 기획전을 준비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의 장소는 아이들이 문화선교 장소로 세운 아트센터의 개관을 기념하는 첫 번째 전시회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트센터는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다.

청현재이 말씀그라피 선교회는 캘리그래피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시 나눔, 교육 등 다양한 문화선교 도구로 활용하여,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초교파 비영리 말씀선교단체이다.

2014년에는 10개의 신학교가 참여한 부활절 말씀깃발전 등을 비롯해 2019년 기준으로 3000여 교회가 참여하는 범 기독교 문화적 행사로 확장되었다. 다양한 각종 절기 가운데 활발한 사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고 방지일 목사, 주가철 목사, 옥한흠 목사, 언더우드 선교사, 김준곤 목사, 정필도 목사 등의 어록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유산을 기억하고 아어나가기 위한 일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말씀 사역자 과정을 개최하여



청현재이 말씀그라피 선교회가 신년 전시회를 개최한다. ©청현재이

성령의 글씨, 말씀그라피를 쓰는 목적, 방법, 태도 선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신도를 위해 이들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할링 프로그램, 성경 필사, 가훈 특강, 말씀 특강 등 외에도 다양한 교육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임동규 회장은 “드디어 아트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 이곳은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링하는 곳”이라며 “믿음을 위한 말씀그라피 전시와 교육이 365일 진행될 예정인 아트센터의 첫 전시회에 함께 해 주시길”이라고 전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달 8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상진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CTS 새벽예배-송태근 목사 40 사복음서 50 신앙예세이	40 힐링스토리 5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중인들>	00 TV 설교/연동교회 김주용 목사 30 TV 설교/성찬교회 오윤희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고명진 목사(수원중앙교회)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40 [말씀] 김다워 목사(선한목자교회)	00 TV 설교/신나는교회 이정기 목사 3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50 생명의 말씀-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50 말씀의 생터 왕성교회 길요나 목사	2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30 TV 설교/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	4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50 노변대화
	8:00	20 신앙예세이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 성지기행	20 다크 더 로드 30 힐링송 5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	20 CBS성서학당	00 비전메시지 -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 세미한교회 이은성 목사
	9:00	00 아주 특별한 찬양 50 리바이츠 헤리티지	50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미니다큐	0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40 CGN 비전특강	10 새롭게 하소서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00	00 청년백서3 3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생터 여의도침례교회 국명호 목사	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0 더 콜링 : 부르심의 소명:117회 기도하며 전국 일주 2부 - 김대성 목사 40 CBS TV 뉴스/CBS 뉴스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오후	11:00	00 한국교회를論하다 50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자스트 텐 미닛 <아이자야 씹스타원> 50 말씀으로 호흡하는 교사	00 올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50 말씀의 창 - 청주금천교회 신경민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한별 목사(대치순복음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오병이어교회 금요성령충만집회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00 TV 설교/구세군대한본영(담당 사관) 30 TV 설교/만리현성결교회 조준철 목사	20 말씀의 창 -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 50 말씀의 창 -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30 위대바이블	00 말씀의 생터 영광의교회 조이엘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다니엘 기도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미사강변 우리들교회 김기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아주 특별한 찬양	00 주일예배실황 공의교회 김학중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00 TV 설교/신일교회 배요한 목사 30 새롭게 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
	15:00	40 사장님은 선교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곰	0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행복다이어리 30 TV 설교/약대교회 송규의 목사:하나님을 선택하라!	00 C채널 스페셜 소망교도소 개칭 13주년 감사예배
	16:00	30 생명의 말씀-최태준 목사(남포교회)	00 말씀의 생터 목길교회 임재호 목사 30 말씀의 생터 송전교회 권준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칩 잉그램의 성경이 말하는 현대 이슈 50 [말씀] 박관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성서학당:갈릴리 산책 31강 - 조성목 목사 ""예수님의 버림의 법칙!"" 50 CBS비전특강/CBS 비전특강:(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인치유)<340강 "주의 날개아래 보호받는 자">	00 내 삶의 행복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저녁	17:00	00 정필도 목사의 CTS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말씀의 생터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 30 말씀의 생터 분당선교교회 윤규현 목사	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성서 700 도시여행/성서 700	00 말씀의 창 - 아산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 30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45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00 행복플러스 30 한성위성 50 더 메시지	10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5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30 TV 설교/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네 보던 일을 섬하라	00 말씀의 창 -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19:00	00 청년백서3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 성지기행	00 말씀의 생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30 말씀의 생터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30 잇쉬의 서재 시즌2	00 TV 설교/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30 TV 설교/세대니교회 박주환 목사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00 생명의 말씀-유승대 목사(은평성결교회) 30 생명의 말씀-윤차복 목사(영등포비전교회)	00 말씀의 생터 거룩한빛운정 유정상 목사 30 주일예배실황 지구촌교회 서울	00 풍당 비디오가게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오직 주님만 솔로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장종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니까 40 복음강단 - 영동영락교회 고요셉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다니엘 기도회	30 리바이츠 헤리티지 3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성서학당 50 CBS 뉴스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22:00	40 다니엘 기도회	10 오룡교회 금요철야	10 갯돈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10 올포원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금요성령집회 - 제자광성교회
저녁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 금요철야예배 50 은혜로운 찬송이ಾಗಿ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니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맥스 루케이도의 더 스토리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CBS 금요철야예배/CBS금요철야예배:은혜의 유레카	10 금요철야예배 수령로교회
	24:00	00 콜링갓 50 하나님의 음성	00 주일예배실황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새롭게 하소서 50 TV 설교/산위의마요교회 김영준 목사	00 새에덴철야예배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10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40 CTS 특집다큐	00 오 자유여	00 [말씀] 황인철 목사(홀리톤장로교회) 4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40 TV 설교/사랑의 말씀(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00 비전메시지 -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바이츠워십
	2:00	30 신학은 학문이 아니니까 40 사장님은 선교사	00 명성교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 3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30 TV 설교/말씀과 함께(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00 말씀의 창 -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30 찰스 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00 GOODTV 다크스페셜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Wind and Fire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	00 새롭게 하소서	00 선교는 지금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옥한흠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생명의 말씀-전대식 목사(서울진주초대교회)	00 은혜와 찬양 20 말씀의 생터 감일교회 차영아 목사 50 힐링송	10 [말씀] 박신웅 목사(열바인온누리교회)	00 CBS성서학당/스페셜 50 CBS 교회소식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말씀의 창 -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GANGWON  
2024YOUTH  
OLYMPIC  
GAMES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 2024년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사업권자로 선정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제1·2여객터미널 내 고객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은행 업무 및 환전은 물론, 여행자보험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고객만족도 1위 KB국민은행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 제1관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고객만족도 1등에 맞는 품격 있는 금융서비스로  
고객님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OPEN**

\* KB국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2개의 영업점과 11개의 환전소 및 15개의 ATM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KB 국민은행